

敬亭 李民晟의 『朝天錄』 研究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이민성의 『조천록』과 그 시대적 배경
3. ‘인조책봉주청사’ 해로사행의 노정과 중요내용
4. ‘인조책봉주청사’의 외교활동 분석
5. 결론 : 이민성 『조천록』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의

1. 문제의 제기

기록은 과거를 고증하고 재생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사신을 보낼 때 사행을 기록하는 서장관은 사행 중 매일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돌아온 뒤에는 왕에게 견문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를 다녀온 조선 사신들의 기록인 『朝天錄』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인조 책봉을 위해 1623년에 파견되었던 주청사의 서장관, 이민성의 『朝天錄』은 사행기록의 이체였다. 이것은 인조반정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설득시키는 치열한 외교전을 상세하게 기록한 독특한 사행의 기록이며, 기록의 힘을 다시 보여주는 사행기록의 백미였다.

敬亭 李民晟(1570~1629)이 살았던 시기는 선조시대의 임진왜란, 광해군 시대의 亂政과 인조반정, 정묘호란 등 조선 역사의 대 혼란기였다. 이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시기 학문적으로는 퇴계와 율곡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최고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조정에서는 광해군을 둘러싼 대북파의 전횡으로 당파싸움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였다.

조선 왕조에서는 새로 왕위에 등극하거나, 세자를 정하거나, 왕비를 선정할 때, 그때마다 책봉을 위한 사신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책봉을 요청하였고, 명은 그때마다 허락하여 책봉 교서와 誥命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세자 책봉과 인조의 책봉, 등 명·청 교체기에는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비협조적인 점을 트집 잡아, 책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관계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때, 서인들의 책략으로 인조반정이 성공하면서 조선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인조의 왕위등극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명나라는 후금과의 명분을 건 深河 전투에 패배하면서, 조선이 명나라를 배반하고 후금과 화친하려는 조선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었다. 명나라는 인조반정을 정당하지 않는 왕위찬탈로 보고 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인조의 책봉 주청사 사행이 꾸려진 것이다. 이 임무는 막중하였으며, 조선의 조정과 명나라의 조정의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외교전은 세간의 큰 관심사였다. 이 사행에 대해 기록한 것이 이민성의 『朝天錄』이다. 이 『朝天錄』은 조선 외교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행기록의 명편이며,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많은 역사적 秘話를 간직한 훌륭한 사료이다.

이민성 일행은 해로로 북경에 가면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등주에 도착할 때부터 명나라 관리들의 야유와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명나라 조정에서 인조반정의 실상을 해명하고 책봉을 얻어내기 위해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온갖 수모를 받으며 약 1년 2개월에 걸친 사행을 통해 치열한 노력과 끈질긴 로비로 인조의 책봉

을 받아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이때처럼 난관에 부딪힌 적은 없었고, 역대 사신들 중에서 이만큼 사활을 걸고 논쟁을 벌인 적도 없었다. 이 기록은 당시의 치열한 노력 끝에 이루어낸 인조책봉 주청사의 사행활동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이민성의 『朝天錄』은 사행에 대한 매일 매일의 행적을 기록한 일기인 반면에, 『燕槎唱酬集』은 사행 도중에 유람한 기이한 경관이나 명승고적을 만날 때 마다 일어나는 정감과 외교활동 중에 일어나는 명사들과 수창한 시들을 모두 기록하여 남긴 시문집이다. 『朝天錄』과 『燕槎唱酬集』은 이 당시 사행의 공통집합으로 사행의 요소들을 동시에 놓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연구한 논문이나 책은 아직까지 없다.

이것은 명나라와 조선의 수많은 사행기록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의 문체작으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록이다.

이민성의 『朝天錄』은 상중하 3권으로 편집되어 『敬亭先生續集』 권 1,2,3 집에 수록되어 있다. 『朝天錄 上』은 癸亥年 1623년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록이고, 『朝天錄 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록이며, 『朝天錄 下』는 10월 1일부터 윤10월 포함, 甲子年 1624년 4월 21일까지의 기록이다. 햇수로는 2년이기에 ‘癸亥’와 ‘甲子’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것은 만 1년 2개월 동안의 기록으로, 조선 사행의 기간으로 따진다면 최고 장기간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우리 외교의 역사나 문학사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료이다.

경정 이민성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업적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에는 경정 이민성이 등장하는데 우리 문학사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경정 이민성의 문학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경정 이민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그가 남긴 방대한 작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심화된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 종종 그의 『朝天錄』은 간헐

적으로 조명되었다.¹⁾

경정 이민성에 대한 연구가 뜸하던 중에, 이영춘, 정진성, 강한규, 원재연, 이미선 5명이 한·중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 『朝天錄』을 번역하여 단행본 『1623년의 북경외교』를 출간함으로써, 비로소 『朝天錄』의 전모가 상세하게 밝혀졌다. 이 책은 『朝天錄』을 번역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사행의 일기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당시의 한중외교의 실태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경정 이민성의 『조천록』에 대한 첫 조명이란 점에서도 그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어서 김지현은 「경정 이민성의 ‘癸亥朝天錄’ 소고」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노정이나 규모와 전모에 대해서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논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²⁾ 이 긴 사행을 소논문 한편에 다 실기에는 분량이 만만치 않다. 경정 이민성의 『朝天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다.

경정 이민성의 『조천록』에 대한 연구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청 교체기에 나타난 해로사행의 시대적 배경과 선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그 준비과정에 대한 고찰에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한다. 둘째, 선사포에서 등주까지의 해로사행에 대한 노정의 분석, 셋째, 등주에서 북경까지의 사행노정과 인종의 책봉을 위한 치열한 외교활동에 대한 분석, 넷째,

1) 文明順, 『敬亭 李民宥의 文藝論과 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학위논문, 1991.

_____, 『敬亭 李民宥의 詩論』, 『漢文學報』, 제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113~141쪽.

_____, 『경정 이민성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朴瓊恩, 『敬亭 李民宥의 詩文學: 日常事 및 燕行的 體驗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15집, 韓國漢文教育學會, 2000, 199~225쪽.

_____, 『敬亭 李民宥의 詩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2) 김지현, 『敬亭 李民宥의 ‘癸亥朝天錄’ 소고』, 『은지논총』, 42권, 온지학회, 2015, 9~37쪽.

사행을 통해 유람한 중국의 풍경에 대한 묘사와 중국 문인들과 주고받은 수창시에 대한 연구, 다섯째, 외교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정과 사행의 평가에 대한 분석 등이다. 경정 이민성의 『朝天錄』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생각할 때, 더욱 심화된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민성의 『朝天錄』을 조명하여, 그의 사행기록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그를 조선헌문학사의 중요한 문인으로 부각 시켜 보고자 한다.

2. 李民宬의 『조천록』과 그 시대적 배경

李民宬(1570~1629)의 본관은 永川이고, 자는 寬甫이며, 敬亭은 그의 호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經史와 제자백가서를 두루 통달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재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승정원좌승지에 추증된 李世憲이고, 할아버지는 이조참판에 추증된 李汝諧이다. 아버지는 행 강원도관찰사인 李光俊이며, 어머니는 貞夫人 平山申氏로, 宣務郎 申權의 따님이다. 이민성은 1570년(선조3) 11월 임신 일에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밝아 겨우 7, 8세 때에 이미 글의 뜻을 깨쳤으며 器局이 단정하고 후중하며 문장의 생각이 뛰어나니, 보는 자들이 이미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다.

1589년(선조22)에 모친상을 당하였으며, 27세 때, 1597년(선조30) 庭試에 등과하여 承文院正字에 제수되었다. 이민성의 윗대는 대대로 군위에서 살다가 1600년에 지금의 의성으로 이주했다. 1601년(선조34)에 承政院注書에 제수되었다. 32세 때, 1602년 世子侍講院說書에 제수되었다가 司書로 승진하였으며, 광해군 세자 책봉을 위해 奏請使書狀官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다. 선조는 1592년부터 1604년까지 다섯 차례의 세자 책봉 주청사를 북경에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는 조선의 태도를 비판하며 선뜻 응해주지 않았다. 1603년에 禮曹佐郎에 임명되었다가 兵曹佐郎兼知製教로 옮겼다.

이때 이민성은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國朝의 文才를 논하자면 崔簡易의 문장은 九鼎·大呂와 같고, 韓石峯의 글씨는 八陣·六花와 같아서 어떤 일을 기록할 때 이 두 분이 합작을 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1603년(선조36)에 이 두 분이 영동의 고을 수령으로 함께 나갔는데 그 고을들이 금강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때 강원도 관찰사인 부친 鶴洞 李光俊과 약속을 하고 금강산에 모두 모였는데, 마침 司書로 있던 李光俊의 둘째 아들 敬亭 李民寔과 內翰으로 있던 막내아들 紫巖公 李民寔이 휴가를 받아 함께 말을 타고 내려와 밤낮으로 시중을 드니, 山門이 이 때 문에 빛을 발하였다. 이에 간이로 하여금 그때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고, 석봉으로 하여금 붓을 잡아 쓰게 하였다. 아마도 文壇에서 이보다 더 보기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畫壇의 石陽公子 李璣 같은 분이 나서서 화려한 표지에도 대나무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지금까지 帖으로 보관되어 이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고 한다.³⁾

이민성은 당대 으뜸가는 문인들과 금강산을 유람했으니 그때 받은 영향

3) 『簡易集』, 제3권, 序, 「遊金剛山卷序 李監司率二子民寔, 民寔氏」, 참조.

『星湖全集』, 제56권, 題跋, 「鶴洞李公 光俊 家藏海東三絕跋」; 論東方地勝, 惟金剛爲天下人所萃慕. 論國朝才華, 崔簡易文如九鼎大呂, 韓石峯書如八陣六花, 其紀事於斯爲盛矣. 萬曆癸卯間, 兩公俱出宰嶺東郡, 郡距山伊邇也. 於是皆赴方伯鶴洞李公之約, 時鶴洞公之仲子敬亭公以司書, 季子紫巖公以內翰, 休暇共鑣來, 奉晨昏, 山門爲之賁榮. 乃使簡易記行, 石峯拈筆, 殆藝苑無上樂事. 又有畫廚如石陽公子寫竹於金題錦障之間, 至今帖藏, 爲李氏家傳重寶云. 昔王子安逐于朝, 歷滕閣, 序有家君作宰, 路出名區之語, 而況鶴洞公方按一面之節, 敬亭紫巖, 聯輝并暎, 陪遊於神仙洞天, 不其多乎. 鶴洞公顧享年時已七十有三, 一門之內, 百福來集. 是帖也吾知隻千古無與偶, 而不佞得以題名左方, 亦庶幾無遜於三墨之次者乎.

과 감동이 어떠했겠는가? 1604년 正郎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월사 이정구가 두 번째 세자 책봉추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5년에 이조정랑에 천거되었으나 대북파인 鄭仁弘 일당의 반대로 濟州點馬御史로 좌천되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는 위태로움을 위로하자, 공은 웃으며 대답하기를 “남해에서 발을 씻고 한라산에서 옷을 떨치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은 제주 관아에 이르자, 수행하여 온 사람들을 단속하고 세 고을을 엄하게 명하여 말을 점검하는 이외에는 소요하는 바가 전혀 없게 하였다. 공은 조정에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난 지 40여 일 만에 復命하였다. 공은 마침내 아버이의 병환이 있다고 청탁하고는 가솔을 이끌고 고향 의성으로 돌아왔다.

1608년 광해군즉위년 봄에 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이 때 조정에서는 권력을 잡았던 간신들을 治罪하여 세력에 붙은 자들을 모두 축출하였는데, 공은 일을 논하기를 공평하게 하니, 한때에 잘못 죄망에 걸린 자들이 공 때문에 죄를 면한 자가 또한 많았다.

한 諫長이 애매모호한 일을 가지고 정승인 李德馨을 탄핵하려 하자, 공은 시종 강력히 저지하여 發論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체직되고 문학에 제수되었다. 이 해 겨울 다시 持平에 제수되고, 다시 湖堂에서 賜暇讀書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11월 6일에 이조와 예조와 대제학이 의논하여 賜暇書堂할 12인을 뽑아 아뢰었는데, 李爾瞻, 洪瑞鳳, 李志完, 金尙憲, 李民宥, 柳瀟, 金緻, 鄭廣成, 趙希逸, 李厚, 李久, 陸大欽이었다.⁴⁾ 이 중에 이이첨과 대립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609년에 玉堂으로 뽑혀 들어가고 遠接使從事官에 차임되었으나 아버이의 병환 때문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가을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며, 1613년(광해군5)에 禮曹正郎과 弘文館修撰에 제수되고 校理로 승진하였다.

1614년(광해군6)에 다시 校理에 제수되었다가 사직하여 체직되었으며,

4) 『光海君日記 卽位年 11月 6日』.

이듬해에 修撰에 제수되었다. 1617년(광해군9)에 鄭造·尹訥 등이 폐모론을 발의하였다. 鄭造가 掌令으로 있으면서 발론하여 大妃를 별궁에 거처하게 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廢黜할 계책을 부리려 하였는데, 獻納 柳活이 이에 가담하였다. 공은 한두 명의 관료와 더불어 筓子를 올려 정조와 유활의 죄를 지극히 논하니, 公論이 모두 홀륭하게 여겼다.

鄭仁弘과 李爾瞻이 또, 李德馨을 모함하자, 공은 지극히 변호하였으나 끝내 저지하지 못하고는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왔다. 윤리와 기강에 죄를 얻음이 심하다는 내용의 筓子를 올렸다가 李爾瞻 등의 모함을 받아 삭직되었다.

지난번 광해군이 생모를 추존할 때에 백관들이 축하하는 箋文을 올렸는데, 공은 知製教로 있으면서 ‘魯나라의 成風’이라는 말을 하였다. 성풍은 노나라 莊公의 첩으로 아들 僖公을 낳았는데, 광해군의 생모인 恭嬪 金氏 역시 선조의 왕비가 아니고 후궁이므로 말한 것이다. 이이침이 불경죄로 논하여 공의 관작을 삭탈하니, 공은 이후로 여러 해 동안 한가로이 버려져 있으면서, 좌우에 도서를 쌓아 놓고 밤낮으로 탐독하여 거의 잠자고 밥먹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다.⁵⁾

조선은 동아시아의 세계사적인 변화의 정세 속에서 반도국가의 특성상 자주 침공을 받고 있었다. 일본의 강성한 성장은 아시아 대륙의 진출에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공하게 하였다. 임진왜란(1592~1598)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변형시켜 놓았다.

무방비 속에서 일본의 침공을 당한 조선은 초토화 되어 함락의 위기에서 명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조공을 바쳐온 조선에게 명나라는 의리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임진왜란은 명군의 참여로 조명 연합군의 체제로 수습해 가고 있었다.

명나라는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을 맞아 사실상 7년간의 대리전을 치르

5)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第8卷, 碑, 碣, 誌銘, 『左承旨敬亭李公墓誌銘』 참조.

는 동안 궁정내부에서는 당파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밖에서는 농민반란이 일어나 혼란을 거듭하며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조선은 광해군이 왕에 오른 직후 명나라는 광해군이 형인 임해군 대신 왕위를 물려받은 경위를 캐기 위해 진상 조사단을 보냈고, 이에 이이첨은 우환을 없애기 위해 임해군 모살을 사주한다. 대북파는 또 1612년 金直哉 부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며 獄事를 조작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 100여 명을 처벌했다. 이어 1613년에는 인목 대비와 그 아버지 金悌男 등이 광해군과 세자를 죽이고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삼으려 모의했다며 옥사를 일으켜 소북파를 모조리 몰아냈다.

이를 癸丑獄事라고 하며, ‘七庶의 옥’이라고도 한다. 당시 서자 출신 일곱 명의 도적질을 심문하던 과정에서 서인 朴淳의 서자 朴應屠가 “우리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김제남과 몰래 통해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허위 자백하면서 옥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일로 김제남은 사약을 받았고,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된 뒤 강화도에 유배됐다. 이이첨의 사주로 燒死하였다. 또 대북파의 주장으로 인목대비는 대비로서의 특권과 대우가 박탈당한 채 서궁에 유폐되었다.

북방에서는 임진왜란 직후, 만주에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급성장하여 만주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심양에 도읍하고 후금을 세웠다. 명나라는 남방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북방에서는 후금이 쳐들어오고 있었다. 1619년 명나라에 쳐들어오는 후금에 대항하기 위해 명나라는 조선에게 병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진족까지 연합하여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유명한 深河 전투[사르후 전투, 薩爾滸之戰]이다.

조정에서는 후금을 의식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병을 보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출병을 결정했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심하전투에 파견했다. 강홍립은 五道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金景瑞와 함께 1만 3000여 군

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다. 이들 조·명 연합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해 앞뒤에서 적을 협격하기로 했다.

강홍립의 조선군 부대는 명군의 패배소식을 듣고 급히 진을 쳐서 청군을 막고자 했지만 평지에서 조총수가 병력의 반이상이었던 조선군은 후금의 기병대에게 박살이 나고 후금 군에게 2일 동안 포위되어 결국 항복하게 된다.

이때 포로 중에 이민성의 아우 李民寔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강홍립은 광해군의 지시대로 “조선군의 출병이 명나라 강요로 부득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게 항복했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는 크게 패하여 쇠퇴하게 되었고, 후금은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1621년 이후 조선은 명나라로 통하던 육로의 사신 길이 막히어, 해상을 통하여 명나라와 교통하고 있었다.

또 명나라가 압록강 입구에 毛文龍 부대를 주둔시키자, 광해군은 모문룡 부대에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후금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한마디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실리 외교를 펼친 셈이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 같은 외교 정책은 당시 명나라에 대해 철저한 사대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서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1623년(광해군 15)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인조)을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했다. 반정세력은 인목대비를 복권하고,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을 왕위에 올렸다. 계해년(1623) 3월 12에 反正에 성공하고 3월13일에 仁祖가 등극 했다. 이때 廢母庭請 등에 앞장섰던 대북파의 李爾瞻, 鄭仁弘 등은 물론 복인으로서 광해군 말기까지 정치에 관여했던 수십 명이 처형을 당하고, 200여 명이 유배당했다.

이때에 인목대비는 반정 직후인 1623년 3월 14일 교서를 내려 광해군을

비난하였다.

중국 조정을 섬긴 것이 200여 년이라, 의리로는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해 추한 소문이 사해에 펼쳐지게 했다. 예의의 나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치 못하게 했다.⁶⁾

그 후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정권은 친명배금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서인정권은 복인을 도태시키면서도, 남인 李元翼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명분상 하자가 없는 남인을 크게 등용함으로써 반대당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1623년 3월 25일, 이민성은 파직되어 고향 경북 의성에 은거해 있다가, 갑자기 인조 책봉 奏請使書狀官에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바닷길을 가게 되니, 사람들은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공은 태연히 길에 올랐다. 황제의 도성인 연경에 이르자 조정의 의론이 서로 배치되어 저지하고 막기를 백방으로 하였으나, 공은 글을 올려 誣陷을 변명하고 주선함에 마땅함을 얻어 끝내 요청한 것을 허락받고 돌아왔다.

당시 명나라 조정에서 유언비어로 우리나라를 이간질 하려는 자가 있었다. 이민성은 정, 부사와 함께 모書を 올려 인조반정의 거사를 극력 변론하여 명분을 바로 잡고 의리에 합당하게 하였으며, 터무니없는 무고에 대한 분통한 마음을 드러내었으니 그 문장은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뛰어난 문장력 때문에 명나라가 비로소 의심을 풀었다.

갑자년(1624)에 成均館司成으로 있다가 품계를 올려 刑曹參議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을축년(1625)에 同副承旨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좌승지로 승진하였으며, 병인년(1626) 가을에 사직하

6)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1623) 3월 14일, 조항 참조.

였다가 다시 제수되었으나 또다시 병으로 사직하였다.

누르하치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을 막기 위해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후금에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태종은 1627년 1월 3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 했다.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1월 25일 황주에 이르자 인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강화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했다.

이때 旅軒 張顯光이 號召使가 되어 특별히 이민성을 경상좌도 의병대장에 추천하였다. 이민성은 全州로 황급히 달려갔다. 소현세자를 보호하고 오랑캐를 막을 便宜策과 변방 백성을 불러 모을 계책을 아뢰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후금군의 배후를 공격했으며 조선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후금군은 계속 남하하다가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명을 정벌할 군사를 조선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강화의사를 표시했고 조선이 이를 받아들여 3월 3일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민성은 강화도 行在所에 가서 임금의 수레를 호종하여 조정으로 되돌아 왔다. 이 和約은 비록 치욕적인 형제의 국을 규정하기는 했지만 명과의 외교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무진년(1628) 가을에 사직하여 체직되니, 전후로 승지에 임명된 것이 수십 개월이었다. 공은 밤낮으로 은밀히 돕고 좋은 말씀을 아뢰어 임금을 보필한 것이 실로 많았으며, 事務가 운집하였으나 거행하기를 물 흐르듯이 하니, 승정원에서 모두 칭찬하였다.

기사년(1629) 여름에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으며, 8월 15일 병으로 正寢에서 별세하니, 享年이 60세였다. 訃音이 알려지자 성상께서는 애도하시고 특별히 賻儀하도록 명하였으며, 中外의 선비들은 서글퍼하고 애석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해 11월 3일 先大夫의 先塋 아래에 장례하니, 곧 義城縣의 서쪽인 霞峴 兪坐震向의 언덕이었다.

그는 직언을 잘하기로 이름 높았으며, 의리가 강해 광해군의 亂政 때 奸黨들에게 모함을 받은 李德馨·李元翼·永昌大君을 구출하려고 힘썼

다. 1672년(현종 13) 고향인 경북 의성의 藏待書院에 제향 되었다. 초기에는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장성한 후에는 西厓 柳成龍, 旅軒 張顯光을 스승으로 모셨고, 鄭礎, 申之悌, 金耆國, 金尙憲, 吳允謙, 李霆 등과 교유하였다.

평생에 저술한 것이 무려 수천 편인데 내용이 清新하고 雅健하여 옛날 作者의 氣風이 있으며, 지금 모두 수습하여 실추한 것이 없으니 후세에 전할 것을 도모한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명나라에 갔을 때 그 곳의 학사·대부들과 酬唱한 시는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중국 사람들이 그를 李謫仙, 이태백에 견주어 불렀다고 한다. 현재 1,300여 수의 시가 전해지며, 저서로는 『敬亭集』, 『朝天錄』 등이 있다.

『敬亭集』은 木版本이다. 跋文이 없으므로 자세한 출간 경위는 알 수 없으나, 『家狀』에 따르면 이민성의 글들은 家藏本 형태로 전해지다가 12권으로 묶여져 처음 간행되었다. 印刊을 주도한 것은 이민성의 아우인 李民寔과 아들인 李廷機였다. 이들이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朝天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 5세손인 李命天和 6세손인 李祥發 단계에 와서 비로소 현재와 같은 형태로 묶여져 간행되었다. 본문에 실린 두 개의 행장 중 하나는 1657년(효종 8)에, 또 하나는 18세기 후반을 살았던 정범조에 의해 쓰여진 점으로 판단할 때, 이 문집은 적어도 18세기 후반 이후에 印刊된 판본으로 생각된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敬亭集』(<奎 5348>)과 『敬亭先生續集』(<古 3436-10>)인데, 속집 중 1冊은 별도로 구분되어 『敬亭先生年譜』로 제목이 붙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서번호: 4-5744)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본 문집은 광해군에서 인조 대에 이르는 시기의 대명 및 대청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신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3. ‘인조책봉주청사’ 해로사행의 노정과 중요내용

(1) 서장관 임명과 준비의 절차.

(1623년 3월 25일 ~ 4월 26일)

노정 ; 경상도 의성 출발 → 유곡 → 문경 → 충주 → 음죽 → 이천 →
광주 → 한양 도착.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3월 25일 | 1623년 3월 25일 서장관 임명. | |
| 4월 04일 | 경북 의성에서 교지 받음. | |
| 4월 07일 | 의성 출발, 신지제의 별장에 들러 인사. 霞齋에 도착. 경절 형 만남. | |
| 4월 08일 | 선영 배알. 鉢兒谷에 도착. 구경준 부자 찾아옴. 士昂과 함께 잠. | |
| 4월 09일 | 문경관내 幽谷 도착. 驛丞 李葦이 텅빈 관소에서 잠. | |
| 4월 10일 | 문경 도착. 부제학 鄭經世 조령에서 다음 역에서 만나자는 전갈 남김. | |
| 4월 11일 | 충주 도착. 급히 상경하라는 임금의 교지. 可興畝의 배, 이미 출발. | |
| 4월 12일 | 陰竹 도착. 전날에 정우복을 만나라? | |
| 4월 13일 | 이천 경유. 府使 沈彥明 찾아 봄. 慶安驛에서 잠. | |
| 4월 14일 | 광주를 경유하며 목사 元景明 찾아 봄. 한양 도착. | |
| 4월 15일 | 사은숙배. 월사 이정구 만남. 주청사교제 상소올림. 南以恭 만남. | |
| 4월 16일 | 서울. | |
| 4월 17일 | 비답. 정사, 부사, 洪命元, 李光庭, 정사우, 정호선, 이중번, 이사우, 만남. | |
| 4월 18일 | 서울. | |
| 4월 19일 | 서울. | |
| 4월 20일 | 사헌부 겸지평으로 임명. 金壽賢을 만남. | |
| 4월 21일 | 사은숙배. 홍문관 방문. 鄭經世, 尹知敬, 趙誠立을 만남. 이호민 만남. | |
| 4월 22일 | 종부시정 겸춘추관편수관. 지계교검사헌부장령에 임명. 李必榮, 閔馨男, 봄. 아우 李民寔, 任叔英을 봄. 함께 술을 마심. | |
| 4월 23일 | 의정부에 인사. 방물 검사, 포장 감독. 李聖求, 영의정 이원익을 만남. | |
| 4월 24일 | 사은숙배. 張晚, 李廷馨, 南以恭, 李之華, 李廷求, 吳允謙 만남. | |
| 4월 25일 | 李晬光, 陸大欽, 權昉. | |
| 4월 26일 | 입궐 하직인사. 申欽을 만남. 전별연. | |

1623년 3월 12일,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조선은 인조반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여 신흥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곧바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책봉을 받기 위한 奏聞使가 꾸러진다. 1623년 3월 25일, 이민성은 인조책봉 주청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인조반정 직후 인조의 책봉을 받기 위해 책봉 주청사가 정사 李慶全, 부사 尹暄, 서장관 李民晟으로 꾸러졌다. 4월 4일에 임금의 교지(敕旨)를 받은 이후의 일정을 분석해 보니, 바쁜 노정에도 주변의 인물들을 찾아가 일일이 인사하는 일이다. 서울 도착 후에는 인조반정이후 새로이 구성된 조정의 인물들을 두루 찾아보았으며, 거의가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민성이 관직에 있을 때 관련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조정에 들러 사신 때 가져갈 방물을 꼼꼼히 검사하고 불량한 것은 다시 교체하도록 하였다, 주청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송별연이 거의 날마다 열렸다.

이민성은 그동안의 관직공백기를 매우느라 새로 임명되는 인조반정의 공신들과 교유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각 고을을 지나며 유명 인사들을 찾아 배알하기에 바빴다. 원래 주청사의 정사는 월사 이정구였으나 월사 이정구 상공이 1604년에 광해군 책봉 주청사로 갔던 일 때문에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민성도 1602년 광해군 세자책봉사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던 일 때문에 사유를 갖추어 상소문을 지어 승정원에 바치고 나왔다. 이것은 한때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광해군을 비하하고 인조의 책봉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의리에 알맞지 못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었다.

4월 17일, 상소문의 비답이 다음과 같이 내렸다. “사신이 출발한 날짜가 이미 박두하였으니 결코 바꾸어 임명하기 어렵다. 조그만 혐의를 가지고 핑계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즉시 정사로 임명된 李慶全을 찾아뵙고 이어서 부사로 임명된 尹暄을 찾아뵙었다.⁸⁾ 그리고 그 이하 여러 어른들

7) 李民晟,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四月]; 天啓三年 癸亥 三月二十五日 政差奏聞使書狀官 四月初四日 祇受有旨.

을 찾아뵈었다. 1621년 이후부터 시행된 해로사행에서는 폭풍을 만나 여러 명이 죽은 사건이 간혹 있었다. 이 때문에 목숨을 건 위태한 해로사행을 대부분 꺼리고 있었다.

조정은 인조반정으로 대북과 200여 명을 숙청하고 새로 정부를 구성하며 여러 각료들을 새로이 임명하고 있던 시기이다. 경정 이민성을 인조책봉 주청사 서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여러 벼슬을 동시에 내리고 있었다. 새로이 벼슬을 받은 주청사는 左議政 李慶全, 禮曹判書 尹暄, 司憲府 掌令 李民歲으로 꾸러졌다. 이것은 명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문서를 올릴 때 명분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조책봉주청사는 보통 때 사신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러지고 있었다.

이민성은 영의정 이원익 대감과 특별한 사이였다. 이원익은 위로의 말과 아우 이민환에 대해 물었다. 아우 이민환은 조선이 후금을 쳤다 대패한 ‘심하 전투’ 포로가 됐다 풀려난 것 때문이었다. 이원익은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을 만나보고 가는 것이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시해 주었다. 모문룡(1576~1629)은 명나라 말기의 무장이다.

1621년 후금의 요동 공격으로 인해 조선으로 도망쳐온 모문룡은 후금의 배후에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1629년까지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椴島에 머무르며 명과 조선과 후금의 삼각관계 전시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1627년 정묘호란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1623년 4월 26일 드디어 사신행차를 출발하기 위해 임금께 하직인사를 올렸다. 인조는 “육로의 행차도 염려가 되거늘 만리 바닷길을 일엽편주에만 의지하여 가니 자못 염려가 된다.”라고 하였다. 임금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여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사신의 행차에 관한 일을 아뢰었다. 활과 화

8) 李民歲,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四月]; 十七日 丙子; 留京批答下 發程日期已迫 決難改差 勿以小嫌爲辭 卽拜正使李四宰 慶全 于草前洞奉話而退 過圻伯洪樂夫令公 將往見副使尹同知暄 遇諸塗敍于馬上.

살, 사슴과 표범가죽 등을 하사하였다. 밖으로 나오자 쥘부채와 기름종이와 납약 등을 하사하였다. 이어 빈청에서 술을 내리시는 것을 마시고 물러났다. 태학사 상춘 申欽(1566~1628) 어른을 뵈고, 경기 감영에 가니 송별연이 개최되었다.⁹⁾ 사신은 당시의 최고 문장가들이 선발되는 것이었다. 조선의 이름난 문장가는 거의 다 사신을 다녀온 사실이 있었다. 이민성은 선배 문인관료들을 찾아뵈고 다양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사신으로 떠나기 전까지의 준비과정이었다. 인사, 주연, 방물검사 및 포장, 외교문서 등이 주를 이루었다.

(2) 서울에서 평안도 선사포 까지 (4월 27일 ~ 5월 23일)

노정 ; 서울 → 벽제 → 개성 → 평산 → 서흥 → 봉산 → 황주 → 평양 → 순안 → 숙천 → 가산 → 정주 → 광산 → 선사포.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4월 27일 | 查對. 예조의 전별연. 南以雄, 李敏求 인사. 정오 출발. 벽제에서 유숙. | |
| 4월 28일 | 개성 도착. 韓浚謙을 장단에서 뵈. 留守 安應亨이 주연을 베풀. | |
| 4월 29일 | 부사 조상 산소에 절하고 뒤쫓아 도착. 윤조원 인사. 박연폭포 李時發. | |
| 4월 30일 | 平山 도착. 南汝昂 만남. 술병이 남. 李汝璜이 찾아옴. | |
| 5월 01일 | 瑞興 도착. 葱秀山에서 휴식. 鄭明海 뵈. 옥류전에서 李汝璜, 柳昌文 뵈. | |
| 5월 02일 | 鳳山 도착. 천동번개와 비. 정사, 부사, 해주목사 함께 술. 노래 부름. | |
| 5월 03일 | 黃州 도착. 李子淵 문안, 노자를 줌. | |
| 5월 04일 | 아침 중화 도착. 丁好恕 주연. 최봉서, 김덕룡, 채염수, 최창정, 박응인. | |

9)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四月], 二十六日乙酉; 拜辭 肅拜後引見于文化堂 承旨閔汝任 史官辛啓榮 注書李昭漢入侍 下教于使臣曰 陸路之行 猶爲關念 萬里滄海 只憑葉舟而往 殊可慮也 使臣啓達使事 玉音琅然 莫不竦聽 臨出 面賜弓箭鹿豹皮 既出 雨籠貼扇油毛臘藥各賜送 仍賜酒于賓廳 罷出 謁右台尹相公于松峴 正使已過 副使在坐 右相慰語良久曰 昔年余以兵議赴京 賀至 曹郎李命俊爲書狀矣 蒙贈別章有曰 遠朝南至日 仍帶一郎星 至今未忘也 仍命酒引數酌而退 歷拜太學士申象村 出赴京營 吏判戶判圻伯戶議錢行 正使被酒而退 左台鄭相公 晉原柳相公竝送人致問 南羅牧諸公出沙峴外 送人邀之 朴同知鼎賢 李同知廷臣 鄭員外百昌 奇汝仁 李鎮之南士豪竝來餞 正使醉不省矣 聞禮曹啓請來日查對 故還于京營近處 與而壯 士高聯枕.

| | | |
|--------|---|--|
| | 저녁 평양 도착. 부사의 큰아들 尹順之가 선사포에서 옴. | |
| 5월 05일 | 김달천, 최정원, 윤형언 봄. 역관 申應灑 표류한 중국인들 데리고 옴. | |
| 5월 06일 | 순안도착. 밤에 큰 비. | |
| 5월 07일 | 肅川도착. 卞三近, 安夢尹, 申光立. 술병으로 술자리에 못나감. | |
| 5월 08일 | 휴식. | |
| 5월 09일 | 아침 청천강에서 배를 타고 嘉山 도착. 崔衍, 洪憲 주연. | |
| 5월 10일 | 納淸亭에서 李寅卿 만남, 新安館에서 동지사 만남. | |
| 5월 11일 | 정주 도착. 1602년 사행 때 입원 했던 곳. 동지사 李顯英 봄 | |
| 5월 12일 | 진현물품 포장. 윤낙천, 이자선, 최정원, 최구, 동지사 전별 | |
| 5월 13일 | 정주. | |
| 5월 14일 | 정주. | |
| 5월 15일 | 모문룡 부하 沈世魁를 만남. 閔汝儉 만남. | |
| 5월 16일 | 정주에서 머물렀음. | |
| 5월 17일 | 郭山 도착. 鄭忠信, 李尙吉, 李寅卿, 주연, 도원수가 노자를 주고 감. | |
| 5월 18일 | 선사포 도착. 身彌島에서 조망. | |
| 5월 19일 | 부사 정사 도착. 정사. 신미도 조망 시를 남김. 乘船狀啓 올림. | |
| 5월 20일 | 海神 제사. 은 수색. 배 시험 운행. 齋來事目 잃어버림. 支應官 (보급담당), 安夢尹, 여연길, 안철, 윤염이 옴. 僉使 李澤 선원관장. | |
| 5월 21일 | 호리고 비. 의주사람 선원으로 위장하고 들어옴. | |
| 5월 22일 | 맑음. 관원과 일꾼들 점검. 배 6척, 서원 총 345인. | |
| 5월 23일 | 사신 출발준비 완료. | |

査對는 조선시대 중국(명·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 번 재검토 확인하는 것이다. 査對가 끝난 후에 예조에서 전별연을 베풀었다. 계속되는 주연으로 술병이 났다. 5월 11일, 정주에 도착했다. 이 민성에게 정주는 특별한 곳이었다. 1602년 광해군 세자 책봉 주청사 서장관으로 갔다가 돌아 올 때에 병이 나서 열흘간 누워 있었던 곳이었다. 그 때 간호를 해주었던 기생들을 찾아보았으나 거의 죽고, 늙은 기생 근생, 난생, 의생, 오청룡 등 만 생존해 있었다.

정주에서 동지사로 갔던 李顯英과 그의 아들 李基祚를 만났다. 4월 28일에 등주를 떠나서 배를 탔는데 섬에서 풍랑을 피한 기간이 5일, 항해한 지 6일 만에 선사포에 도착했다. 바닷길이 매우 순조로워 일행이 편안하였다고 했다.¹⁰⁾ 이 당시 해로는 아직 개척된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이민성은 그 해로의 안전을 묻고 있었다. 5월 17일, 곽산에 도착했다. 1602년 광해군 세자 책봉사로 갈 때 동반자였던 정충신과 毛文龍 접반사인 이상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연이 벌어졌다. 이 주연에서 술이 반쯤 취하자 목사 이인경이 검무를 자청하였다. 칼을 휘두름이 재빠르고 호탕하며, 악기 연주가 모두 정연하여 구경하는 자들이 넋을 잃었다.¹¹⁾ 평안도 지역에서 조선과 명나라 사신들을 떠나고 맞이하면서 각종 공연이 베풀어지는 곳이었다. 이 공연에서는 기생들이 흔히 검무를 추는데 흥문연을 재편집한 것이었다. 이곳에는 예술을 공연하는 기생들이 많았다. 이렇듯 사신을 위한 수많은 전별연 속에는 학문적 토론, 시와 춤 등, 각종예술이 공연된다. 주연은 다분히 예술과 문화, 그리고 문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5월 18일 오후에 선사포에 도착했다. 거리가 군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고, 사는 집들은 작고 초라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했다.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다. 신미도가 안산에 해당하고 조망에 가장 적당하였다. 진청은 서쪽에 있었는데, 정사가 이름 짓기를 解纜亭이라 하였고, 앞에는 절벽 위에 외로운 소나무가 있었는데, ‘返槎臺’라고 하였다. 시를 지어 사실을 기록했다.¹²⁾

5월 21일 선사포에서 의주 사람들이 선원으로 위장하여 들어왔다 하였다. 대개 그들은 등주지방과 밀무역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이었

10) 李民宬,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十一日 庚子; 留定州 癸卯 赴京回還也 臥病于迎春堂十餘日 救病者皆作故 只老妓謹生, 蘭生 醫生 吳靑龍 生存矣 見冬至使 李重卿令公及其胤 典籍 基祚 聞四月念八離登州 乘船避風于島中者五日 行六日回泊于宣沙 海路甚善 一行安穩云.

11) 李民宬,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十七日 丙午; 到郭山 朝鄭虞候忠信自龍灣來見于定州 乃燕山舊伴也 毛都督接伴使李尙吉令公來見 酒半 牧使李寅卿請劍舞 揮霍豪宕 絲管俱定 觀者動魄.

12) 李民宬,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十八日 丁未; 午後抵宣沙浦 距郡三十里 所寓之舍矮陋不堪居 但島嶼亂點於海面 身彌島爲案 最宜於眺望 鎮廳在西偏 正使名之曰解纜亭 前有孤松冠壁 命之以返槎臺 詩而識之.

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인식표를 나누어 주고 허리에 차게 하여 대오를 단속하였다. 사신들을 호송하고 책문이나 등주의 국경에서 돌아오는 인원들을 인솔해오는 團練使들에게 분속 시켰다. 간사한 짓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폐단을 막고자 함이었다.¹³⁾ 당시에 도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민성은 선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선단의 조직은 다른 『조천록』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제1선 ; 정사, 당상역관 1명, 역관 1명, 군관 5명, 寫字官 1명, 북경에서 일할 노복 3명, 요리사 2명, 뱃사공 5명, 선원 47명, 포수 4명. 정사 외, 총 69명 이었다.

제2선 ; 부사, 당상역관 1명, 역관 2명, 學官 1명, 군관 6명, 의원 1명, 북경에서 일할 노복 3명, 뱃사공 5명, 선원 46명, 포수 9명. 부사 외, 총 74명 이었다.

제3선 ; 서장관, 당상역관 1명, 역관 2명, 군관 2명, 別破陣(폭약전문가) 1명, 사헌부 서리 1명, 북경에서 일할 노복 1명, 李恂의 노복 1명, 뱃사공 5명, 선원 37, 요리사 1명. 서장관 외, 총 47명 이었다.

제4선 ; 단련사, 당상역관 2명, 역관 3명, 군관 3명, 노복 1명, 뱃사공 2명, 선원 30, 포수 9명. 단련사 외, 총 50명 이었다.

제5선 ; 단련사, 당상역관 1명, 군관 4명, 의원 1명, 노복 3명, 선원 37명, 포수, 사수 7명 단련사 외, 총 54명 이었다.

제6선 ; 당상역관 1명, 역관 2명, 노복 3명, 뱃사공 2명, 선원 36명, 포수, 사수, 5명. 총 49명 이었다.¹⁴⁾

13)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二十一日, 庚戌. 陰雨. 在宜沙浦候風, 聞義州人冒屬格軍. 蓋要射利於登州地方. 故分給腰牌. 團束隊伍. 分屬於左右團練. 使以防奸騙生事之弊.

14)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二十二日 辛亥; 晴乘船 朝查點一行員役 第一船 正使駕 坐堂上 譯官張世宏 譯官崔泳 軍官黃珀 姜

배는 총 6척, 관원과 일꾼은 총 345인 이었다.

특히 이 사행단에는 당상역관을 비롯하여, 폭약전문가 까지 역대 사행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고 크게 꾸려졌다. 이 당시 사행단에 학관과 사자관을 추가시키지는 의론이 왕조실록에 보이는데 이 사행에서는 추가되어 있다. 이민성의 『조천록』은 다른 『조천록』과 달리 해로사행에 있어서 선단에 대한 조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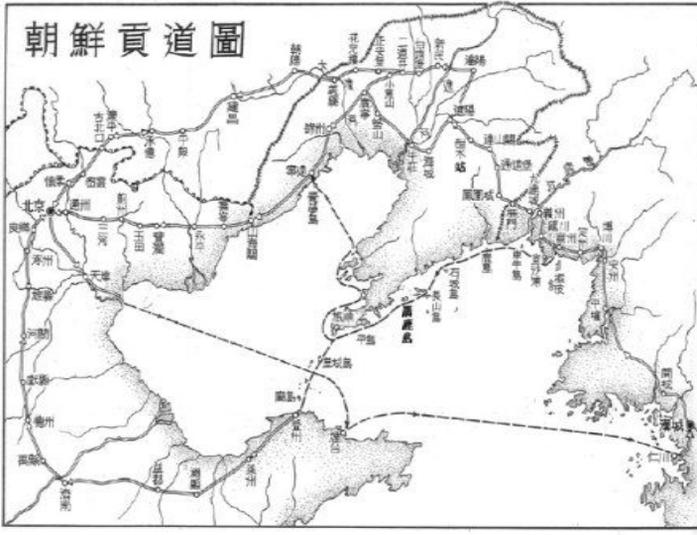
이때에 거의 모든 관료들이 인조책봉 주청사로 떠나는 이민성을 위로하고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수를 따져보면 이민성이 얼마나 많은 조정의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던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민성은 조정의 각광받는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3) 선사포에서 등주까지(5월 24일 ~ 6월 13일)

노정 ; 선사포 출발 → 芝島 → 우리채 → 가도 → 거우도 → 우도 → 녹도 → 석성도 → 장산도 → 광록도 → 삼산도 → 황성도 → 묘도 → 등주.

漕 崔得男 金起南 李寬 寫字官張應善 北京奴三名 廚子二名 梢工金禾里等五名 格軍吳龍等四十七名 炮手四名坐焉 合六十九人 第二船 副使駕 坐堂上 譯官李膺 學官李長培 譯官丁仁信 軍官柳敬地 尹衍之 鄭禮男 咸得瑞 李德龍 具翻 朴黔同 醫員李坡 北京奴三名 梢工朴石乙屎等五名 格軍劉貞福等四十六名 炮手金義傑等九名坐焉 合七十四人 第三船 余所駕 坐堂上譯官李洵 譯官張後巡 崔俊男 軍官金健邦 鄭昌雲 別破陣 洪春榮 司憲府書吏 林春茂 北京奴一名 李洵奴一名 梢工康禾里 奴之此非 康汝奉 俱安州人宋成實 旌義人姜同福 鳳山人 等五名 格軍龍山 嘉山人 廚子愛守 安州奴 等三十八名坐焉 合四十七人 第四船 團練使金鳳輝 堂上譯官堅後曾 黃汝中 譯官禹啓賢 全有後 李得實 軍官申彥福 金天擎 金承祖 堅後曾奴一名 梢工韓莫金等二名 格軍金京日等三十名 炮手禹鶴卿等九名坐焉 合五十八人 第五船 團練使金希京 堂上譯官申應灑 軍官尹應士 金天吉 崔興南 牟天壽 醫員金彥信 堂上譯官奴三名 格軍應男等三十七名 炮射手白男等七名坐焉 合五十四人 第六船 堂上譯官太德立 譯官尹大銃 李富潤 堂上軍官奴三名 梢工金福等二名 格軍權論金等三十六名 炮射手韓武進等五名坐焉 合四十九人 各船員役格軍共通三百四十五人.

附圖二



[그림1] 명나라 조공도¹⁵⁾

1621년부터 후금이 북방을 차지 한 후부터 육로가 막히고, 해로 사행이 시작 되었다. 이 ‘명나라 조공도’에 나타난 노선이 바로 인조 주청사의 해로 사행의 노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5월 24일 | 여명에 선사포 출발, 역풍, 조류 때문에 芝島정박. 저녁 우리채 도착. | |
| 5월 25일 | 灰島 도착. 靉島 도착. 모문룡 만남. | |
| 5월 26일 | 연회. 항해와 명나라 사정 탐색 도움요청. 모문룡이 은낭을 하사함. | |
| 5월 27일 | 車牛島 도착. 주변에 冊島, 獅子島. 멀리 湯站의 봉황성이 보임. 키 수리. | |
| 5월 28일 | 호리고 비. 牛島. 駱惟新이 사신일행 안내. 사공 羅男 돌고래 잡음. | |
| 5월 29일 | 牛島. 바람을 기다림. 온종일 책도에서 물 보충. 휴식. 이무기를 봄. | |
| 5월 30일 | 薪島를 돌아 鹿島를 향함. 대, 소 獐子島를 지나 녹도에 도착. | |
| 5월 31일 | 녹도에서 있었음. 원문 없음. | |

15) 중국 바이두 사전.

| | | |
|--------|--|--|
| 6월 01일 | 석성도에서 폭풍을 만났다. 죽을 고비를 넘김. 전라수영에서 만든 羽船. | |
| 6월 02일 | 낙유신이 와서 도움. 해안에 내려 중국인 천막을 빌려 조섭함. 배 수리. | |
| 6월 03일 | 낙도사(낙유신)이 차를 선물함. 잣 한말로 담례. 駱賓王의 먼 후손. | |
| 6월 04일 | 長山島에 도착. 다른 배들의 정황을 몰라 밤새 애를 태움. | |
| 6월 05일 | 廣鹿島에 도착. 술과 고기, 채소와 육류를 선물 받음. 낙도사의 도움. | |
| 6월 06일 | 안개 비. 李 天壽이 채소와 육류를 가지고 옴. 그와 담소함. | |
| 6월 07일 | 파도가 심함. 험한 파도를 건너 밤 삼경에 三山島에 정박함. | |
| 6월 08일 | 삼산도에서 내려서 정사 부사와 함께 서로 위로. 휴식 중 시를 수창함. | |
| 6월 09일 | 平島의 굴혈을 봄. 旅順口를 봄. 쾌청. 순풍천리. 황성도 도착. | |
| 6월 10일 | 쾌청, 타기도, 죽도, 대경도, 소경도, 묘도, 흑도, 장산열도, 묘도도착. | |
| 6월 11일 | 묘도에서 기다림. 조선 선박 수성출입 금지령. 낙도사 활약. | |
| 6월 12일 | 표문의 내용이 기가 막혀서, 문서를 올려 해명하기로 협의 함. | |
| 6월 13일 | 등주 수성에 도착. 개원사 숙소에 안착. 시를 수창함. 해상노정을 정리. | |

5월 24일, 새벽에 드디어 닻줄을 풀고 돛을 내리고 출항하여 정오에 芝島에 1,2,3선 도착 정박, 역풍이 불고 조류가 거슬러 올라와 배를 운행할 수가 없었다. 서남쪽에는 가마솔을 엮어 놓은 듯한 섬들이 있으니 가까운 것은 ‘삼오리’라 부르고, 비스듬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여삼오리’라고 하는데, 흰 모래섬 같았다. 둥그스름하게 멀리 떨어진 것은 ‘申島’이고 그 서쪽에 산이 있었다. 가까우면서 매우 수려한 것이 ‘우리채’이고 그 앞의 작은 섬은 ‘진채’라고 불렀는데 뱃사람이 한자를 몰라서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배 안에는 평상과 휘장, 장막 등 물품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다행히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¹⁶⁾ 이민성은 배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었다.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621년 3월 심양과 요양이 누르하치에 의해 함락되자 모문룡은 패잔병을 이끌고, 압록강변의

16)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晌午 一二三船俱泊于芝島 風逆潮上 不得運船故也 西南有島如覆釜 而近者曰三五里 橫斜而離立者曰餘三五里 望之如白沙汀 窿然而稍遠者曰申島 又其西有山 近而妍秀者曰于里寨 前小島曰眞寨 舟人不識字 依俚語錄之 申時潮退 舉釘 二船最前 諸船鱗次而逝 俄而三船忽前 夕下釘于于里寨 唯五六船落後 泊于芝島 入夜穩寢 船內房牀幄帘取用之具粗足賴以稍安.

진강을 점령했다. 1621년 후금의 阿敏이 모문룡을 치기 위해 5천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 가산, 용천 등을 습격했다. 모문룡은 요동 전체를 수복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용천 관아에 있다가 조선인 복장을 하고서 도망쳤다. 이 기습으로 유민 578명이 죽었다.

후금의 대병력이 내려오자 1621년 7월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椴島에 상륙한 모문룡은 철산, 용천, 의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명의 패잔병과 난민을 수습하면서 민가에 대한 약탈을 일삼았다. 1622년(광해군 14) 광해군은 모문룡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명군과 난민 1만여 명이 이곳에 머물렀다. 이들의 부족한 식량은 조선에 군량을 강요해 징수했으며, 명나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이때 징수한 西糧은 모문룡이 철수한 뒤에도 계속 징수되다가 1648년(인조 22)에야 폐지가 되었다.

모문룡은 명나라의 우방인 조선을 후금의 공략기지로 삼는다면서 漢族들을 동원해 후금을 자극하고 조선의 국경을 어지럽혔는데, 1622년 10월 이러한 공으로 명나라로부터 총병을 제수 받았다. 그러나, 모문룡은 실제로는 가도를 거점으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교역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5월 25일 가도에 도착하였다. 견여를 타고 毛文龍을 만나러 갔다. 아문에 나아가니 도독이 나와 공수하고 있었다. 사신이 각각 예단을 올리니 사양하기에 다시 청하자 받았다.

“노야께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부터 군사 단속이 엄하고 털끝만큼도 소란이나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있어서는 통찰하지 않음이 없어서 명백하게 중국의 육부 상서나 지방의 순무, 도독, 등 고관이 황제에게 올리는 문건인 題本을 올릴 것을 허락하여 온 백성들이 떨 듯이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도독이 답하였다. “내가 이 지방에 주둔하면서 어찌 소요와 피해가 없었을 리 있겠어요. 새 임금께서 현철하시어 국면을 변화시키어 오랑캐를 협공할 뜻을 품고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책봉을 받는 일은 제본을 갖추어 상주하려고 하지만 해당 부와 각 아문에 함

께 보고하여 알리려 하니 문서가 크게 번거로워 저절로 지연되었습니다. 초하룻날에 마땅히 발송하겠지만 그 행차가 반드시 사신보다 먼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이 돌아오는 날씨는 기약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 전에 황제의 승인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오늘은 마침 바쁘고 시끄러우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였다. 도독 모문룡은 곧 平遼 摠兵官으로 절강의 錢塘 사람이지만호적은 山西省 太平이라고 하였다. 17) 이민성은 모문룡을 잘 활용해야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신들은 다양한 계책을 준비하여 외교전에 돌입하고 있다.

5월 26일, 모도독이 초청을 하였다. “오늘 음식을 준비하여 그곳의 수행원들을 받들어 맞이하고자 하오니 왕림해 주시면 매우 기쁘고 다행이겠습니다. 知生 毛文龍 再拜.” 도원수가 나를 보고 말했다. “도독이 사신을 연회에 초청하여 후대하는 것은, 자신이 조선에 분란을 일으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북경의 각 이문에 전파해 달라는 것이니, 이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가르쳐 주신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도독이 날씨가 더우니 편한 복장으로 잔치에 임하자고 했다. 우리는

17)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中火後各坐肩輿詣摠鎮衙門 越一峻嶺而下 復登峻坂 迤而東折 而西石路崎嶇 幾十餘里 山勢回抱北向土 窩草廠 各占高下 前有孤峯陡起 鎮衙背之 蓋瓦者僅數楹 而餘皆苫覆所設鋪店 亦甚草草 海港在孤峯之北岸下 檣烏簇立于兩涯 聞都元帥昨抵此見都督 都督回謝于船所 是晚請宴云 令申應瀝預呈拜帖 都督傳語曰 明當往拜船次云 更遣黃汝中探聽 則都督傳語曰 聞使臣在船所 故請俟明日矣 卽審在途 要與相見云 遂進于衙門 都督出廳堂外拱立 進前再拜 答再揖 行禮訖 使臣各呈禮單 都督辭焉 再請乃領 都督入廳堂 就北壁椅坐 揖使臣分就東西坐 行茶後 使臣令通官李膺等措辭告曰 老爺自駐敝邦 約束嚴明 軍聲漸振 而無一毫擾害 至於我國事情 無不洞察 許以明白上本 一國臣民 莫不傾踊 都督答曰 俺駐此地方 豈無擾害之理 新王賢哲 變局協勦之意 俺已知之 封典一事爲具題奏 如該部各衙門合行報知 文書浩繁 自底遲延 初一日當爲發送 然其行必在使臣之前矣 使臣回程未易 期其前溫旨若下則何幸 今日適忙擾 俟來日再見 遂稱謝而退 都督卽平遼摠兵官浙之錢塘人 而籍在山西太平云.

무례하고 갑스럽지 않을까 하여 사양했으나 굳이 청하여 억지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연회의 도구들이 매우 풍성하고 사치스러웠다. 또 재인들의 공연도 있었고, 음식이 연이어 나왔다. 사신이 황제에게 올릴 상주문의 초고를 좀 보여 달라고 하자 즉시 아전들에게 지시하여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일로에 호소하는 牌文(통행증)도 발급해 주었다. 도독이 또 말하기를 “선원을 보내 바닷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도독이 사행에게 노자로 쓸 은냥을 보내 주었는데 원역과 노비들에게까지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도 별도의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해 주었다.¹⁸⁾ 이민성은 원역과 노비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의 평소 애민의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번 사행의 임무는 모문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주청사들은 모문룡과 인조 책봉을 위한 계략을 논의하였다. 가도에 주둔한 모문룡은 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모문룡과 주청사 사이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할 만한 것이 있었다. 모문룡은 주청사들에게 자기를 위해 본국에다가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문룡은 황제에게 인종의 책봉승인을 위해 우호적인 상주문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

18) 李民寔,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二十六日 乙卯; 大風雨 都督送拜帖 且言雨勢如此 不得回謝 別致請帖曰 即日洽芹 奉迓麾從 伏祈光臨 可勝忻幸 知生毛文龍再拜 晏朝 稍晴 出坐巖上 元帥送軍官 約與相見 元帥乘船在港 擺小舢登帥船以敘 聞督府待帥相極厚 辟左右密約軍機云 帥相語余曰 都督之請宴於使臣 以示厚意者 要布自家不爲擾害之說於各衙門 幸知此意 答以依教 望見兩使自船所赴鎮衙 遂辭退 帥相握手以別 又與兩別將以興 鄭虞候忠信敘別 擺舢抵港口 肩輿以行 與使臣進見衙門 如前行禮訖 都督即請便服行宴 辭以褻慢 都督曰 天氣甚熱 便服兩便 不敢強辭 都督引就坐 預排卓兒 饗具豐侈 又呈耍戲 進膳頻繁 使臣要見奏稿 都督即令掾房出示之 併給一路護送牌文 都督又言撥送水夫 鄉導海路 遂致謝 都督各給送行銀兩 並及員役奴子有差 且餽酒飯于別處 使臣屢辭 都督勉留行 十餘勺 遂辭退 還著冠帶 都督亦改服 行禮而退 上通事禹啓賢以罪除 申應濼代之。

5월 28일, 우도에 머물렀다. 이순이 도독부에서 군병을 점검하고 사열하는 바람에 간신히 명함을 통할 수 있었다. 도독이 개인서찰 4봉투를 주었는데, 袁, 譚, 田, 魯, 즉 명나라 고관 袁可立, 譚昌言, 田惟嘉, 魯廷言을 말한다. 특히 袁可立은 후일 본국에서 인조반정을 해명하고 책봉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가함도사 낙유신을 차출하여 사신일행을 안내하게 하고 이르기를, “요동사람은 성격이 온순하지 않으므로 남쪽지방 사람을 잘 선택하여 보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였다. 모문룡이 천거한 낙유신의 헌신적인 도움은 인조의 책봉을 받는데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이민성은 한사람의 돌출된 인물을 발견하여 기록하고 있다. 수영으로 항구를 가로질러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고래 두 마리를 잡아서 산 채로 뱃전에 올려 보내니 곧 안악사람 羅男이었다. 비상시에 쓸 만한 인물이므로 임무를 교환하게 했다. 낮에 사신이 장계를 갖추어 발송하고 아울러 집에 편지도 보냈다. 밤에 배 안에 누웠더니 닭소리가 각각의 배에서 들려서 마치 수춘에 온듯하였다. 이민성은 해로의 위험에도 편안함을 느끼며 태연작약 하였다.

5월 29일, 우도에 머물렀다. 하루 종일 휘파람을 불며 감상하면서 풍파의 고통을 갑자기 잊어버렸다. 어찌 조물주의 나를 위해 배를 돌리게 하여 기묘한 절경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절구 한 편을 지어서 기록하고 갔다. 이무기를 보았다. 巨栗梁(완도와 제주도 사이)을 지날 때도 이무기를 보았는데 오고 가는 뱃길이 쉬웠다. 마음으로 은근히 기뻐다. 배 가운데 또 쥐가 있었는데 뱃사람들이 서로 축하 하였다. 저녁에 송성실 등이 낙지와 굴을 캐서 올렸다. 민검동은 바다 갈매기를 잡았고, 나남은 또 돌고래를 잡아왔다.¹⁹⁾ 이민성의 이러한 기록은 사행 기록 중의 특이한 것으

19)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五月]; 二十九日 戊午 陰留牛島 巳時 掛篷 棹出島口 西北望見薪島 六船在前 二船次之 三船最後 二船腰

로서 문인다운 인정이 넘쳐난다.

이민성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6월 1일, 이른 아침 배를 운행하였다. 큰 바다로 나아가니 풍랑이 세계 일어났다. 멀리 중국의 관원이 승선한 쾌속선 한척이 돛을 펴고 오는 것을 보았다. 이순이 소리 지르기를 “낙 도사인가요?” 하니 그렇다고 했다. 주방에 불이 붙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가 겨우 진화하였다. 사시에 풍랑이 극도로 심하여 배가 심하게 요동하였다. 기울어졌다가 다시 서고 겨우 바로 섰다가는 다시 기울어졌는데 부사의 배가 심했다. 오시에 석성도에 정박했었다. 섬의 서쪽 500리에 흑도와 황골도가 있는데 후금에 투항한 한족의 가짜 오랑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다. 동쪽에는 대청도 소청도 오정도, 서장자도, 백사도, 대장산도, 소장산도 등이 있다. 섬에는 돌로 쌓은 성터가 있는데 그래서 석성도라고 한 것 같다.

밤 이경에 모두들 샷자리 안에 들어가 곤히 잠들었는데 군관 정창운이 촛불을 들고 와서 배가 정박했던 곳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뱃사공에게 소리 질러 확인하게 하였더니 과연 이동하고 있었다. 선원들을 독촉하여 보아도 모두 잡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풍우가 세계 몰아쳐서 지척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벼락처럼 흔들리며, 치고 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배의 밑바닥이 크게 부딪혀서 안정되지 않으니 곧 부서

圍闊大 不任風濤 是夕 軍官黃珀等力主發船 諸船纔出洋 無風不可行 還入牛島 卽命梢工棹過冊巖 以便取汲 昨日望見之島 或斷或續 斷處遂成海門 唯第四五之間 相去約五十步 白沙橫作門限 內外水勢盪射不能越 島之盡處石壁回曲如窩房 可容十几 其內白沙半露半沈 俄而潮退 乾淨可坐 其南素嶼圓秀類香鑪然 前有絕壁削立如浮圖 高可數十丈 有鳥類鵲而巢其絕頂 其背地勢櫛長隆平 俯臨海汀 白沙彌望 橫斜敝側 可以摹取 竟日嘯賞 頓忘風濤之苦 豈造物者爲我回棹 以償奇絕之債耶 爲賦短句識之而去 未時 望二船泊于牛島 膠著石嶼 舟忽傾側未已 用攤繩縛梘竿 糜住厓石 舟人危之 有蟒自五島越海向六島 曾往耽羅時 見巨蟒浮海 截向巨腰梁 往來利涉 心竊喜焉 船中且有鼠子 舟人相賀 夕 宋成實 金松直採絡蹄石花進之 閱檢同挈海鷗 羅男又得海豚而來 餽之酒 獨不及挈鷗者 夕 回泊于牛渚.

져 침몰하는 변고가 닥칠듯하였다. 또 새어 들어오는 물이 사방에서 솟구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선판이 파손된 것 같았다. 사공들이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비비며 하늘에 축원할 뿐이었다. 송성실은 내가 제주도 에 갈 때 선주였는데 울면서 내게 고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옷을 갈아입고 죽음에 대비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 할 일이나 전력하라고 했다. 즉시 물을 퍼내게 하였는데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다. 또 샷대를 내리게 하였는데, 샷대가 밧줄에 감겨있어 창졸간에 풀거나 자를 수가 없었다. 자귀나 망치 등의 도구도 깜깜한 밤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차고 있던 패도를 송성실에게 주어 밧줄을 잘라내게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배가 전복되지는 않았지만 밤은 이미 3경이 되었다. 사공 동복 등 수영을 잘하는 자들을 시켜 배를 해안의 바위에 묶어 두게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오직 송직, 용산, 羅男 등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의 생명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공무수행 중인 사신들은 살려야 한다.”라고 하고 마침내 밧줄을 당겨 물에 들어가 해안 바위에 묶었다. 그러자 조수가 물러가고 배가 갑자기 바닥에 달라붙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용산에게 상으로 주었다. 불을 밝혀 배의 바닥을 비추어 보니, 선판이 헤어져 틈이 벌어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배가 요동하여 물에 닿을 때마다 물총을 쏘는 것처럼 물이 들어 왔다. 급히 명령하여 틈을 메우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잘 수리하였다. 배가 본래 견고하고 치밀하였기에 때문에 침몰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니, 이는 곧 전라수영의 狎字 선박이다.²⁰⁾ 이 사고의 기록은 긴장과 이완이 들어가 그대로가 한편의 드라마

20)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一日庚申 夜值颶風于石城島 早朝發船 水淺舟膠 遂用篙轉 因水勢而行 辰時 舉帆出洋 風浪漸盛 舟行不安 望見唐官乘曉船布帆而來者 李恂呼曰 駱爺麼 答曰是 適正使船相值 火發廚房 舉船蒼皇 俄而沃滅 巳時 風浪極盛 舟甚掀盪 敲而復正 纔正復敲 副船爲甚 午時 泊于石城島 島西五百里許有黑島, 黃骨島 爲假獮所據 東有大小

마이다. 羽字 선박이란 용어에서 이민성이 타고 있는 배의 모양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민성은 배의 구조나 시설에 우리배의 우수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이민성의 『조천록』의 기록은 해로사행의 모험과 개척, 긴장과 이완이 있고, 재미가 넘치고, 간간이 문학적인 표현이 곁들여져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한다.

6월 2일, 석성도에 도착했다. 석성도는 금주위에 속한다. 녹도에서 삼산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금주위에 속하였고, 금주, 복주, 해주, 개주는 모두 오랑개가 점령하였고, 오직 바다에 있는 약간의 섬들만이 총진에 속하였다.²¹⁾

靑 五家 五亭 西嶺子 白沙 大小長山等島 島中有石城遺址 故名焉 周回二十里 寬平可居 居人盛集 以觀我行 駱船過前 令李恂呼語曰 大人爲我們辛苦滄海 不勝感愧 敢問安 都司出船窓 唱喏致謝 夜二更 船人皆入篷底困睡 獨軍官鄭昌雲 執燭而語曰 船漸移於停泊處 叫篙工視之則果移於初泊矣 督卸梘竿皆執不可 俄而風雨大作 咫尺不辨 震盪擊裂之聲 不絕於耳 船底衝撞不定 破碎淪溺之變立至 且漏入之水四道噴涌 疑船板撓破 梢工等皆以爲無可爲 但按手祝天而已 宋成實乃余奉使耽羅時船主也 泣而來告曰 事已至此 願預處 其意蓋欲改服以待命至 叱退令盡力所事 卽教鄭昌雲 崔俊男等督令辱水 舟不至沈 又督卸梘竿 梘竿爲糜索所纏 倉卒不可解 割如鎌子柄椎等具 黑夜尋之不得 卽拔所佩刀授成實 割切繩索 艱得卸倒舟不至覆 夜已三更矣 梢工同福等 飭善游者維舟于厓石 皆不從 獨松直龍山 羅男等相語曰 吾等性命不足道 要活官行 遂牽索入水 維于厓石 汐退船忽膠住 更生更生 遂脫所著衣以賞龍山 火照船底則枷塞數處 搖動浮出 水如激射 亟令填塞 候天明 更加修葺 船本牢緻 故得免敗沒 乃全羅兵營羽字船也.

21)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二日石城島屬金州衛 居人七十餘家 遼人之逃難者 倍焉 摠鎮差劉可紳爲參將以鎮之 自鹿島至三山島 俱轄于金州衛 劉參將所管也 金復 海蓋則爲虜巢 唯海路若干島屬於摠鎮而已.



[그림 2] 명정교체기 형세도22)

이민성의 배는 지금 지도상에 표시한 부분에 있다. 배는 요동반도 연안을 따라 항해하고 있다. 이 당시의 명·청 교체기 형세도를 보면 이민성의 형세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6월 3일, 낙 도사가 차 한 봉지와 인사장을 보내 왔는데, “중국의 명차는 천식을 해소하고 원기를 소생시키기에 삼가 받들어 올립니다.”라고 하며, 별지에 차 달이는 법을 기록하였다. 샘물을 가지고 불로 끓이다가 큰 기포가 생기면 차 잎을 자원에 넣고 끓는 물을 반이 넘게 붓는다. 때맞추어 소금을 함께 끓는 물에 타서 차를 만들면 심히 맛이 좋다. 10분을 비율로 소금은 2분을 넣고 끓는 물은 8분으로 한다. 즉시 감사장을 썼다. “저

22) 중국 바이두 사전.

는 본래 가슴에 열증이 있는데 뱃길에 번민이 심하여 범화의 즈음 마셔 갈증을 식히려고 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좋은 선물을 받으니 한 잎 한 잎이 모두 완전한 건계의 명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 달이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로 다려 마시니 아름다운 향기를 손상시키지 않았습다. 침이 생기고 말랐던 몸에 윤기가 돌아 크게 진기를 부지하게 하니, 오직 막힌 것이 사라지는 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잣 한말을 보내어 저의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자 하오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낙유신은 절강 성 의오 사람으로 등주에 거주하며 낙빈왕의 먼 후손이라고 하였다.²³⁾

이민성은 차를 애호 하였으며, 중국차에 대해 일가견이 있었던 듯하다. 중국의 명차가 우리나라 사신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것 같다.

6월 4일, 장산도에 도착하였다. 다섯 바위가 각자 지른 듯이 떨어져 있으니 마치 다섯 장부가 버티고 서있는 듯하였다. 바위 서쪽에는 반송 한그루가 그 정상에 관처럼 씩뚱져 있으니, 기이하고 절묘하여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²⁴⁾ 경정 이민성은 자연미에 가끔 도취되어 그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며 향유하고 있었다.

6월 5일, 광록도에 도착하였다. “저희들이 바람과 파도에 몰려서 귀하의

23) 李民宓,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三日壬戌 霧雨留石城島 駱都司遣茶一封并帖曰 上國仙茶 消痰生津 謹奉獻 具右烹法 用泉水火燒大滾 將茶葉放在磁碗 將滾火澆過半時 取滷均白滾水而成茶 甚美 十分爲率 以滷二分 滾水八分云 卽具謝帖曰 伏蒙特惠仙茶一封 珍感不已 侍生素患肺熱 舟行悶甚 思汎花乳以沃煩渴而不可得 卽領盛甌 一旂一槍 宛然眞面 不問其名 可知爲建溪佳品耳 且蒙示煎法 深得陸蔡之妙 恨不得惠山泉 發揚眞味爾 幸依此烹飲 不損佳趣 生津潤枯 大扶眞氣 但覺消壅之益 不曉瘠氣之害 渴中得此 爲幸 就將海松子一罇 聊表微悰 伏惟勿却 奉謝不宣 駱浙之義烏人 寓于登州 賓王之遠裔云.

24) 李民宓,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四日癸亥 到長山島 俄而霧開 見絕壁巉巖前 有五石峯刻削離立如五丈夫 巖西有蟠松一粒冠其巔 古怪絕妙 畫所不及 遂緩棹容與而行 回望後船 僅露蓬尖 兩兩而進 瞥眼間忽被霧罩 不知所在.

영토에 정박하게 되니, 마치 부모의 땅에 들어서는 듯합니다. 뜻하지 않게 번거롭고 놀라움을 끼쳤으니 황송함을 감히 아뢰입니다.” “참장이 말하였다. 귀국과는 한집안과 같은데 어찌 의심하고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으므로 방어하는 직책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술과 고기를 보내오고 너그럽게 대접하여 역관들을 보내 주었다. 또 채소와 육류를 보내주었다. 종이 묶음과 철부채 몇 개로 감사를 표시하였다.²⁵⁾

명나라는 누르하치가 건국한 후금과 전쟁 중이었다. 이 전시 상황에서 조선은 명나라와 조선은 외교 관계가 한 집안과 같은 관계라고 표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민간에서부터 관료들까지 조선과 명나라는 한 집안 같은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명나라가 深河 전투에서 패배하고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후금과의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조명관계는 긴밀한 관계라고 명나라에서도 특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6월 8일, 부사가 배가 운항할 때 지은 시고를 꺼내 보면서 시를 짓고, 모두 고금을 논하면서 술을 마셨다. 삼전도에 머물렀다. 정사와 부사가 사공들에게 오늘 평도로 출발하는 것과 여기에 머물러 바람을 기다렸다가 황성도로 곧장 가는 것과 어느 것이 편한가? 물었다. 황성도로 직항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²⁶⁾

25)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五日甲子 夕 雨 到廣鹿島 李恔持拜帖告于參將曰 陪臣爲風濤所驅 來泊于貴地方 如入父母之鄉 不意致煩驚訝 惶恐敢布 參將曰 與貴國事同一家 安有疑阻 與賊相對 關防事體 不得不爾 仍餽酒肉 款接以送 且差人送拜帖 餽以菜肉 以紙東扇把遺謝之.

26)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八日丁卯 留三山島 天明 對喫朝飯 竟日打話 副使出示舟行詩稿 遞相諷詠 共商略古今 各飲數杯 大千海中一浮漚之喻 不是孟浪 相對而笑 余次副使工字韻曰 浮沈同宦海 行止聽篙工 正使笑曰 余亦於舟中押云 浮沈同水鳥 可謂意思一般 但水鳥宦海 未知誰爲工拙耳 格軍等摘櫻桃進之 無異於陸種 兩使問今日發向平島 與留此候風 直向皇城島 孰爲便否 梢工俱以爲平島連陸不可往 不若留此待風 直向皇城島爲

이민성은 바쁜 경황 중에도 시를 짓는 것을 보면 시가 외교에 활용되는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 과거시험에 시를 시험했을까? 그 당위성이 외교활동을 보면서 풀린다. 시는 외교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 무기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문사가 아니면 사신에 발탁되기가 어려웠다.

6월 9일, 서쪽으로 평도를 바라보며 여순구는 서북쪽에 있었다. 황성도로 바로 직행 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여순구는 바로 錦州衛에 속했다. 황성도에 도착하였다. 순풍은 만기가 어려우니 내친 김에 타기도로 바로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1선과 함께 황성도로 들어가고 2선은 타기도로 바로 달렸다. 아마도 제2선은 타기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²⁷⁾

여순구는 후금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신들은 적진을 피해서 명나라 주둔지만을 골라서 운행하고 있었다. 사신들의 배가 일렬로 편대를 이루어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조건에 따라 때로는 행렬을 벗어나기도 하고, 정박하는 것도 다르고, 하루 정도 거리가 차이 나기도 하며 기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6월 10일, 묘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사시에 항구를 나오니 바람이 순조

便從之日暮 四船始到 金鳳輝, 申應瀨等謁見 送崔俊男問安于駱都司 答曰多拜謝 初昏 使臣飭李膺等備牲酒祭海神 駱船修補趕到 與之偕發 出港泊羊頭子島 待風以行 天未亮矣.

- 27) 李民寔,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九日戊辰 到皇城島 旅順口在其西北 往年陳慰使之行 通事朴慶龍全船被擄 卽其處也 凸山嘴又在旅順口之外 卽劉天使敗船處也 俱在迤西數百里之外 指南正舵 直向皇城島 一行無虞 旅順口乃金州衛 東西舟楫往來之信地 而視之如鬼門關 是日風便極順 波濤不起 五兩微飽 其去如飛 二船次之 一船又次之 諸船俱在數息程外 但見帆尖 出沒於煙濤 不可了了 二船使人傳語曰 順風難遇 不須入皇城島 直向置磯島可矣 余以爲今日穩行一千里海路 非天所佑 何以及此 若猶貪程冒進 恐有後悔 且後頭諸船渺無形影 棄之而去 又非印須共濟之義 戒舟人指向皇城島 一船適近 令梢工叫稟則爲可 二船不待報 而縱舵而逝 日已沒矣 是夜 天宇澄清 星月晶明 如臥齋閣 少無所虞 與一船聯進皇城島 帆風忽住 月光又墜 海色陰暈 不知所向 二船不達置磯矣.

로웠다. 바라보니 타기도, 죽도, 대경도, 소경도, 등이 있고 그 가운데 묘도도 있었다. 흑도와 장산열도가 아득히 점철되어 있는데, 솜씨 좋은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았다. 묘도에 도착하였다.²⁸⁾

여러 섬들이 군도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 섬들이 그림처럼 떠 있었다. 묘도는 사행로에 있어서 중요 기착점이었다. 등주에서 묘도를 바라보면 보인다. 묘도에서 배들이 모여서 사행단을 정비하고 등주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 중이어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군사들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신들의 해외 사행은 자유롭게 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6월 11일, 묘도에서 머물렀다. 한나라 임운의 딸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 해신이 되자 황제가 선녀로 봉하였는데 그래서 섬이름이 廟島라고 하였다. 이 섬을 방어하는 把摠 張昂이 와서 말하였다. 오늘날에는 일의 형편이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군문의 지휘관이 분부하여 조선에서 들어오는 배는 수성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제 공문을 보내었는데 군문에서 회보가 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의 죄상은 마땅히 성토되어야 할 것을 알았으나 아직 북경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²⁹⁾

28)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初十日己巳 朝見皇城島之形勢 周回雖窄 四面皆石壁 唯一面通船路 掘港藏船 且有軍兵 乃防守之所也 巳時 出港 風勢漸順 舟行無滯 望見巖磯竹島大小鏡島 而廟島亦在其中 如黑島長山諸島點綴微茫 類工畫者爲之 昨日落後五船徹夜趕到 與諸船聯次棹入眞珠門 泊于廟島之北隅.

29)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十一日庚午 留廟島 曉 移泊于廟前 漢林蘊之女歿爲水神 勅封天妃 名以廟島者以此也 副使買棗瓜杏分送船上 聞再昨經夜于洋中 備嘗危苦 昨乃抵此云 與副船竝舫相語 聞昨日日本島防守把摠張昂來言 今日事體 與往時不同 軍門按察分付云 朝鮮來者勿許入水城門 去夜俺卽具報衙門矣 待回報方可進去云 駱都司登余船密語曰 請率三位大人所帶通官 見官于各衙門 待回報入來 可矣 俄有官人擎傘者到駱船 駱卽辭去 與其官人入船房 附耳語良久 問諸家丁 則運糧官姓毛者 乃毛帥之姓親云 所語疑探問我國事情而不得聞耳 都司偕世宏, 膺, 恂等同舟而去 聞張把摠到副船 正使泊余送拜帖 張曰 無拜帖 當造拜 張移就正船 從容打話而去 島之形勢 最爲寬闊

이민성은 묘도의 유래와 전설을 해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사행에 대한 명나라 군대의 통제가 드러나 사신의 예우가 소홀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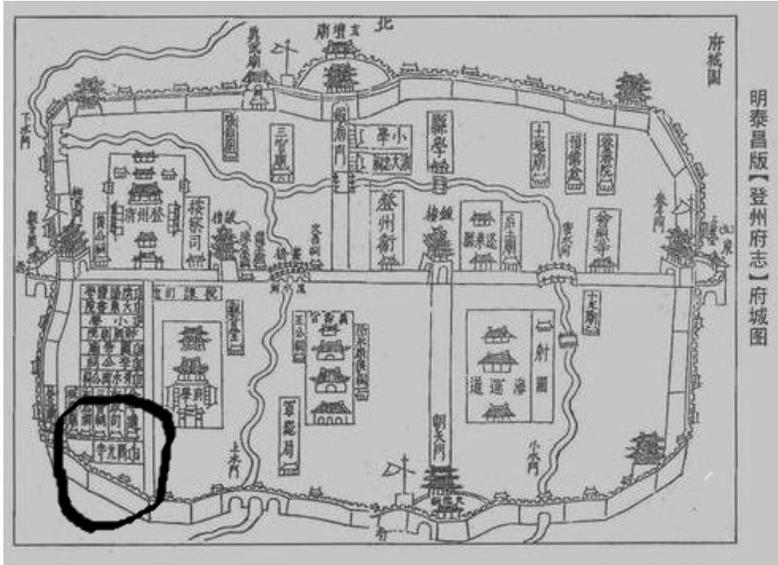
6월 12일, 묘도에서 머물렀다. 근자에 맹추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곧 배신을 차출하여 승인을 요청하려 한다고 하였다. “만약 저들의 배가 도착하면 우선 정지 시켜두고 海防병비도 이문에 보고하여 관원을 차출해 명백하게 조사한 후에 비로소 관문에 들 보낼 일이다. 공문이 해방도에 도착하면 각처에 이첩하여 보내어 본관의 지시 내용을 숙지하고 소홀히 하여 군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하라.”라고 하였다. 표문의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부사의 배에 모여 내일 공문을 올려 해명하기로 하였다.³⁰⁾

이것은 광해군이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것은 인조반정을 문제 삼아, 동북에서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다. 명나라는 조선이 후금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명나라는 곳곳에서 국력이 쇠하고 말기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다.

6월 13일, 군문에서 공문을 내려 등주로 입항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했다. 등주로 나아갔다. 수성은 곧 등주의 외북성이며 분을 칠한 듯한 성곽들이

峯巒縈紆 圍抱左右 其間沙汀橫亘數十里 又有二島浮出其外 若障空補缺者然 其他海嶼之可望者無數 但晴而愈暗 不得瞭然耳 峯頂通望處 遂設煙墩 屯田農幕 處處相望 商船戰艦之拋泊近岸者 不知其數 迺近登防汎信地也 天津衛運糧船三十餘艘待風于此 九月間 發向皮島云.

30)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十二日辛未晴 留廟島 膺等去後無回報 正使令堅後曾乘六船往登州以探之 張昂執不可 出示劉游擊票文 其略曰 欽差山東登州水營游擊將軍劉 爲軍務事 本月初三日 淮海防兵備道副使譚手本前事 本月初二日 蒙海防軍門袁憲牌 照得朝鮮罪當聲討 而朝議未定 近據孟推官稟稱日下已差陪臣入請 如彼船到 當令暫止廟島 速報院道 以憑差官查檢明白 方許進關等情 到道轉會到付 仰本官照牌事理 毋得疏虞 致誤軍務云 票文之語 不可正視 故會于副船 呈文辨釋事議定.



[그림 3] 등주부 지도와 개원사 위치³¹⁾

뽕죽하게 서있고, 성 아래로는 물결이 양치질하듯이 굽어치고 있었다. 날 아갈 듯한 누각이 높은 벼랑을 의거하여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실로 뛰어난 경관이였다. 드디어 남문으로 나아가 숙소인 개원사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다.

이민성이 등주를 묘사한 부분에서 이민성의 문학적 자질을 엿볼 수 있다. 이 당시 사신들의 숙소는 거의 개원사에서 머문다. 개원사는 이 시기 조천록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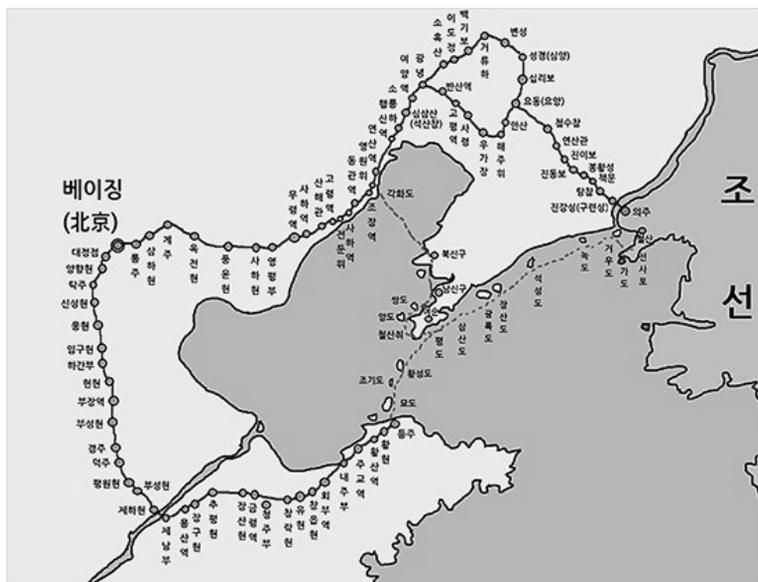
이 당시 등주부 지도와 개원사 위치를 증명해 주는 당시의 등주부 지도가 있었다. 이민성 일행도 이곳으로 안내 되었다. 이민성은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사료적 가치가 되고 있다. 또 그 기록에는 문학적인 표현이 곁들여져

31) 중국 바이두 사전.

있어서 유려한 필치가 돋보인다. 이것은 기행문학의 문학적 가치가 되기도 한다.

이민성은 돌아온 길을 정리해 보았다. 선사포에서 가도까지 100리, 가도에서 거우도 까지 200리, 거우도에서 녹도까지 500리, 녹도에서 석성도까지 500리, 석성도에서 장산도까지 300리, 장산도에서 광록도까지 250리, 광록도에서 삼산도까지 300리, 삼산도에서 황성도까지 900여 리, 황성도에서 타기도까지 160리, 타기도에서 묘도까지 150리, 묘도에서 등주까지 80리, 총 3450리 이다.³²⁾

32) 李民宓, 『敬亭先生續集』, 卷之一, 『朝天錄』上, [癸亥], [六月]; 十三日壬申 到登州應濼還自登州 昨呈報單 軍門出票著令前來云 詰朝 發船 先到水城門外 等使船同泊港口 世宏, 膺等自衙門來謁 水城門乃外北城舟楫出入之門也 粉郭矗立 水漱城趾 飛閣據增厓 俯臨滄海 實一勝槩也 與使臣下岸坐話 有官人來見 其姓名李惟棟也 揖而就坐 查訪各船格軍軍器 要開數書給 軍器則收貯船中 勿令帶去 蓋軍門分付也 李乃假衙都司 跟梁監軍曾到我國者 今屬軍門標下云 遂從南門入 寓于開元寺 余嘗作驟雨詩一絕云 隱几纔聞萬竅風 波濤聲撼太虛空 誰將一片江南地 移就營丘水墨中 石樓曰 此乃你過海朝天之讖也 吾亦於寢壁上得一聯云 身遠却疑超汗漫 天晴何處是登萊 後檢企齋集 得其全篇 事皆前定 豈可逃耶 生亦喜誦振衣千仞岡 濯足萬里流之句 遂成言讖 且耽羅篙師宋成實者 乃遇於數十年之後 庸非前定而何 人或不達於理 而妄以幾微見諸言面 不亦誤哉。○渤海在遼城南七百餘里 海之傍出者為渤 遼東之南皆為渤海 據所經海路 則自宣沙浦至靛島一百里 靛島至車牛島二百里 車牛至鹿島五百里 鹿島至石城島亦五百里 石城至長山島三百里 長山至廣鹿島二百五十里 廣鹿至三山島三百里 三山至皇城島九百餘里 皇城至鼉磯島一百六十里 鼉磯至廟島一百五十里 廟島至登州八十里 總三千四百五十里 然其淹速視風汛之順逆 本無定準 此特舉其槩耳 世傳東海無潮汐 館課嘗出為論題 竊意堯典賓日之嵎夷 卽今登州之地 此乃中國之東海 而據我國則西海也 又我國之東海 卽日本之西海也 論潮汐者 不可言無於中國之東海 言有於日本之西海也 明矣 或疑其強辨 到此然後始審渤海之有潮汐 如登州水城門潮上則棹舟而入 潮退則變為平陸 且觀潮賦 潮之作 播詠今古 何嘗有無潮汐之論哉 此其可疑者也 姑錄于此 以備聞見。



[그림 4] 당시의 여행도33)

이 지도를 보면 선사포에서 등주까지의 해로 노정이 보인다. 이민성은 이 노정을 분석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

이민성의 『조천록』의 기록은 해로사행의 모험과 노정의 개척, 사건의 구성에 재미가 넘치고, 긴장과 이완이 있고, 간간이 문학적인 표현이 곁들여져 있어서 유려한 필치가 돋보인다. 이민성의 『조천록』은 기행문학의 문학적 가치가 다분히 함의된 사행문학의 백미이다.

이민성의 기록은 명말 당시의 군사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담고 있어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되고 있다.

33) 이 지도는 출처가 분명치 않지만, 조선 해로 사행도로 보인다. 인터넷에서 취함.

(4) 6월 14일 ~ 6월 23일 까지 등주유람. 봉래각 유람.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6월 14일 | 군문에 見官禮. 낙유신 집에 들러 대접받음. 撫院, 인조반정 해명. | |
| 6월 15일 | 정문을 올리지 못함. 뱃길에 건강을 다침. | |
| 6월 16일 | 군문에 해명서 올림. 海防道에 나아가 해명. 조선사행단 보고, 주연. | |
| 6월 17일 | 사례하는 잔치. 개원사 승방의 빈대. 여씨 집을 빌어서 기거. | |
| 6월 18일 | 낙유신 잔치를 염. 군문에서 은을 상으로 줌. 병으로 불참. | |
| 6월 19일 | 낙유신 정사의 숙소에서 술판 벌임. 군문에서 반송관 차출. 병. | |
| 6월 20일 | 감군이 부르기예 역관으로 하여금 잘 처리하게 하였다. | |
| 6월 21일 | 사신 비밀장계를 올려 제 6선으로 출발하게 하였다. | |
| 6월 22일 | 건강 조금 회복. 왕유 鞞川圖 완성함. 개원사 개원연간에 창건. | |
| 6월 23일 | 모문룡 상주본을 봄. 봉래각 유람. 행화촌 유람. | |

경정 이민성은 봉래각에 올라 시를 읊었다.

| | |
|---------------------------------|-------|
| 수성문은 비고 푸른 물결 넘실대니, | 門虛碧浪湧 |
| 누각 멀리 비단 노을이 선명하네. | 樓迥綵霞明 |
| 물 다한 곳에 전횡채가 있으니, | 水落田橫寨 |
| 하늘은 낮고 어둠이 없는 성이다. | 天低不夜城 |
| 진황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 秦皇何所得 |
| 한무제 또한 이룬 것이 없도다. | 漢帝亦無成 |
| 먼 나그네 난간에 기댄지 오래, | 遠客憑欄久 |
| 검푸른 바다에 달이 또 뜬다. ³⁴⁾ | 滄溟月又生 |

경정 이민성이 봉래각에 올라서 이곳을 중심으로 교차되는 역사의 흔적들을 시속에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문은 곧 수성문이다[門卽水城門也.]’라는 주석이 있다. 봉래수성은 송나라 때 조성된 것이지만 명나라에 와서 수성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수성에 배는 없고 텅 비었는데 봉래각 저편 물다한 곳에 전횡의 산채가 있다고 했다. 그 앞에는 田橫島가 있

34) 이민성, 『敬亭先生集』 卷之六, 詩, 「燕槎唱酬集」, 上. 「登蓬萊閣」.



[그림 5] 봉래각

었는데, 전횡의 오백군사가 한낱한시에 그 장군 전횡을 사모하여 자결한 섬이다. 그 섬은 한고조에 의해 전횡도로 불려 진 이후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섬은 중국 청도 즉묵시 앞 바다에 있다. 여기서 전횡을 떠올린 이민성의 시상 속에는 이번 사신행차에서 오백의사가 전횡을 위하여 자결했던 것처럼 인조의 책봉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함의되어 있었다.

필자가 봉래각을 직접 답사해 보니 전횡산이 연결되어 있었고, 전횡산으로 가는 전횡삭도가 있었다. 이곳에는 전횡잔도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은 전횡이 한신과 전쟁을 한 곳이고 오백의사가 패해서 도망간 곳이다. 경정 이민성은 봉래각에 올라 전횡의 고사를 떠올렸다. 「登蓬萊閣」이란 제목에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방사를 보내서 바다 가운데 있는 봉래산을 바라본 고로 이름 붙였다.[秦皇 漢武遣方士 望海中蓬萊山故名.]”는 주석이 붙어 있다. 진시황이 방사를 보내 이곳에서 신선이 먹는다는 불로장생



[그림 6] 등주의 수성. 멀리 바라보이는 곳이 봉래각

의 약을 찾게 하였던 곳이다. 서한의 한무제도 이곳이 신선들이 사는 성지로 여겼던 곳이다. 봉래각에서는 가끔 신기루가 보이고 바다위에 궁전이 떠있는 모양이 연출된다.

(5) 6월 24일 ~ 7월 9일 까지 등주에서 제남까지, 선박지급증서를 받기위해.

노정 ; 황현 → 황산역 → 황산일 → 래주 → 회부 → 창읍 → 유현 → 창락현 → 청주 → 금령진 → 장산현 → 장구현 → 제남부.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6월 24일 | 등주출발. 도교사원 점심. 황현도착. 장씨 집 숙박. | |
| 6월 25일 | 황현출발. 북마진포에서 점심. 마고의 고향을 지나 황산역 도착. | |
| 6월 26일 | 비. 두씨 집에서 역관으로 이동. 역승 화만방 아들 맹자 외음. 황산일 도착. | |
| 6월 27일 | 비가 갠. 낙유신과 군관충돌. 신성점, 주교역, 십리포, 래주 東館駟도착. | |
| 6월 28일 | 고촌, 사하를 건넌, 평도주, 회부역 도착. | |
| 6월 29일 | 濁河, 강을 건넌. 新河店, 신하를 건넌. 淮河를 건넌. 창읍 도착. | |
| 6월 30일 | 창읍에 머물렀음. | |
| 7월 01일 | 한정점 도착 점심. 魚河橋, 濰河(背囊河), 濰縣에 도착. | |

| | | |
|--------|---|--|
| 7월 02일 | 玉皇閣, 泰山祠, 洛陽橋, 周流店, 창락현 도착. | |
| 7월 03일 | 극남성, 요구, 익도, 관장, 거미하, 백양하, 청주 도착, 미타사 숙박. | |
| 7월 04일 | 청사역, 누택원, 임치현 남쪽, 재 桓公, 景公, 宣王, 田單의 무덤을 지남, 淄河, 管鮑의 별장, 제나라 도읍을 굽어 봄. 金嶺鎮 도착. | |
| 7월 05일 | 張家, 急遞鋪, 長店, 演武鎮, 長山縣 東館驛 도착. | |
| 7월 06일 | 孝婦河, 雍齒廟, 伏生祠堂, 書院, 范仲淹書堂, 鄒平, 황룡산, 강태공 낚시터, 회선산, 산두점(한가점), 청룡점, 호산점, 章丘縣 도착. 수성교, 성황사, 관왕묘, 악사. | |
| 7월 07일 | 용산역, 긴파, 조창점, 홍제교, 제남부 도착. | |
| 7월 08일 | 역산서원, 표돌천, 폭류천, 대명호, 광회교, 漱玉堂, 聖境仙泉(관란정), 여동빈서원, 濟, 灤은 물 이름에서 유래. 빙감정, 이천경, 당점육, 왕삼읍, 오집어, 인사 노자를 보내음. | |
| 7월 09일 | 수로와 육로를 번갈아 가야함. 배 조치. 방물, 문서 점검. | |

이민성 일행은 등주에서 제남으로 가면서 많은 명승고적을 경유한다. 이 지역은 옛날 제나라 지역이어서 우리 선비들은 이 지역에 대해 풍부한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다. 이민성의 유교적 학문 경향에 따라 주로 유명한 인물, 서당, 서원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제남의 표돌천, 대명호 같은 명승고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6) 7월 10일 ~ 7월 14일 : 제남에서 덕주까지.

대운하의 요충지.

노정 ; 제남 → 안성 → 우성 → 평원 → 덕주.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7월 10일 | 역성출발, 규산, 濟河(배로 건넌), 晏公祠堂, 晏城店 도착. 泰山 보임. | |
| 7월 11일 | 우성현, 우임금 사당, 안노공사당, 동방삭 고향, 가사달 노자 보내음. | |
| 7월 12일 | 장국주를 봄, 도원 옛터, 황회역(濟魯之交), 덕주에 도착. | |
| 7월 13일 | 선박 상선 6척 조달, 뱃길로 감, 통행증 발급. | |
| 7월 14일 | 덕주에서 배에 오름. 배 값 문제로 시비 출발 못함, 부두에서 잠. | |

이 지역도 옛 제나라 고도로서 명승고적들이 즐비했다. 특히 멀리 태산

을 바라보았고, 순임금의 역성과 우임금 사당, 안노궁, 동방삭 등 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적들을 직접 답사하며 감회가 새롭게 다가왔다. 이민성은 유학자였다. 이 유학자의 눈에 들어오는 명승고적은 다분히 유학적인 색채가 들어 있었다.

여기서 사행들이 상선을 빌려 타고 해로와 육로를 겸하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와 닿는다. 덕주는 북경으로 들어가는 대운하의 요충지 였다.

(7) 7월 15일 ~ 7월 22일 ; 덕주에서 천진까지.

노정 ; 노군당 → 상원 → 하원장 → 창주 → 소자구 → 천진위.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7월 15일 | 안덕항 배로 출발, 진하관, 은와사(자씨사), 천불각 유람, 노군당 도착. | |
| 7월 16일 | 새벽 출발, 桑園, 양점역, 안녕진, 동와진, 오교현, 화원 십리포 유숙. | |
| 7월 17일 | 새벽 출발, 직류장, 신교역, 설가요, 진하역, 창주, 유한림 별장, 완화주, 장로 순검사, 홍제현 건녕역, 청현, 화원 20리쯤에 정박. | |
| 7월 18일 | 유하역, 봉신역, 독류진, 양류청, 무청현, 통주 관내, 狍子口 숙박. | |
| 7월 19일 | 위성북문, 천진위, 일만적 배 정박, 옥황묘, 서문밖 후씨 집. | |
| 7월 20일 | 통관서류 때문에 천진위에서 머물렀다. | |
| 7월 21일 | 낙유신과 함께 군문에 호소, 천진에서 곽현까지 거슬러 올라감. | |
| 7월 22일 | 일부는 배로 출발, 일부는 육로로 출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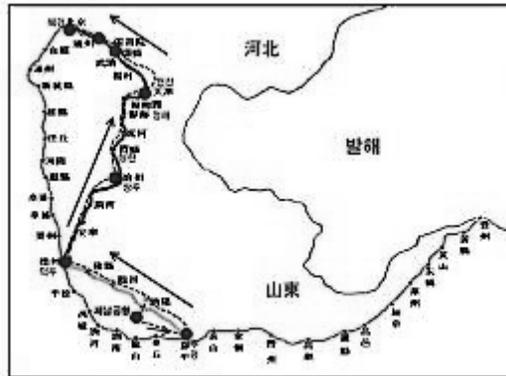
덕주에서 천진까지는 대운하를 타고 변화한 중국을 바라보며, 배로 이동하면서 명승고적을 때때로 관람하는 크루즈 행로였다. 일반 척의 배가 정박하고 있는 천진위의 묘사에서는 중국의 변화한 모습과 대운하를 활용한 남북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명나라는 후금과의 전쟁 속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행의 통관이 쉽지 않았다.

(8) 7월 23일 ~ 7월 31일 : 천진에서 북경 궁궐.

노정 ; 한구리 → 양촌 → 하서 → 곽현 → 통주 → 북경 → 황성(자금성).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7월 23일 | 위성동문 배로 건너서 육로로 출발. 석창리 도착. 밤길 한구리 도착. | |
| 7월 24일 | 양촌의 강가에 도착. | |
| 7월 25일 | 둔구, 의촌 백의암, 하서역 도착. 참장 한종공(이성량 사위), 만나 봄. | |
| 7월 26일 | 灤縣도착. 장가만, 양촌에서 육로, 통주동문 통과 통주 서관일 숙박. | |
| 7월 27일 | 팔리교, 동약묘, 조양문, 홍인가, 장안가, 옥하제, 첩사부, 옥하관 동조, 중국조정 7자 8자가 들어가는 날 공휴. | 원문없음 |
| 7월 28일 | 북경 옥하관 관소에서 휴식. | |
| 7월 29일 | 상주문을 홍려시에 올렸다. 현조례 행함, 승천교, 승천문(천안문), 단문, 오문, 동량장, 황성. | |
| 7월 30일 | 황제에게 절함. 동액문 광록시 황제 술과 밥 하사. 황성 나옴. | |
| 7월 31일 | 주객사 방물이 적다고 함. | |

사행이 천진에서 북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도중에 이성량의 사위 한종공을 뵈고 도움을 청했다. 한종공은 조선에 피신한 적이 있어서 통하는 점이 있었다. 드디어 통주 동문을 통과하고, 지금의 북경 왕징 지역인 조양문, 홍인가, 장안가, 등을 거쳐 시가가 벌어져 있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드디어 7월 28일 북경에 입성하여 옥하관에 유숙하게 되었다. 다음 날 홍려시에 상주문을 올리고, 현조례를 행하고 승천문(지금의 천안문)으로 황성에 들어갔다. 황제를 직접 배알하고, 황제가 하사해준 술과 밥을 광록시에서 먹었다. 사신들 사이에는 황제가 하사하는 밥을 먹었는가? 먹지 못했는가를 따져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이민성은 영광된 순간이라 여기며 사행에 임하고 있었다.



명·청고제기 해로사행 육로노경(대운하구리) 지도도



도 1. 燕行路程概要圖(신춘호, 2016)

[그림 7] 朝天路(연경에 가는 길이어서 연행로 라고도 함. 청나라 사행을 연행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³⁵⁾

이 두 지도를 보면 덕주에서 해로로 천진에 이르는 대운하 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조천로이다. 청나라 시대가 되면서는 거의 육로로 사행이 실시되었고, 이시기 명나라와 교역에 해로가 주로 사용되었기에 조천로라고 해야 마땅하는 생각이 든다. 이민성의 『조천록』에는

35) 신춘호, 여행노정에 대한 지도를 많이 만들었으며 직접 여행노정을 답사하는 전문 연구자.

상세한 조천로가 분석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청 교체기 해로사행 노정 연구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다.

4. ‘인조책봉주청사’의 외교활동 분석

(1) 8월 1일 ~ 8월 31일 ;

북경에서 인조반정의 정당성, 인조책봉을 위한 설득

예부 현당례 → 내각에 明文을 올림 → 예부에 申文을 올림 → 예부와 정병부에 明文을 올림 → 섭각로에게 정문을 올림 → 예부에 정문 올림.

명나라는 조선의 인조반정을 조선국왕 이혼은 조카 이종에게 왕위를 찬탈 당했다고 판단하여 치죄를 하려고 하였다.³⁶⁾ 인조 책봉사는 이 난관을 뚫고 책봉의 인가를 받아내어야 했다.

8월 1일 주사가 정사 이경전을 불러 “너희 나라는 옛 임금을 죄줄 것을 청한 후에 책봉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 일의 체모가 중요하니 예부에서 함부로 편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고 황제의 뜻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정오 무렵에 황제의 성지가 내려왔는데 “속국에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운 것은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관서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였다.³⁷⁾ 책봉사들은 요로에 있는 관리들에게 해명하고, 때로는 예물을 건네고, 관소와 자택을 넘나들며 인사를 하고, 정보를 빼내

36) 『明, 熹宗實錄』, 天啓三年, 戊子 ; 朝鮮國王李琿爲侄李倧所篡.

37) 李民成,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八月初一日 己未 見堂于禮部 俱退立西階 主事叫議政來 正使進前立 主事立語李膺等曰 你國請罪 舊君後請封可矣 事體重大 部裏不可擅便 在聖旨如何耳 午 聖旨下 屬國廢立 係 關甚重 該部看議來說 午後 禹啓賢, 鄭昌雲等來 二更 大雨.

어서 국내로 비밀장계를 올리는 등, 치열한 외교전에 돌입하고 있었다.

8월 2일, 예과급사중 성명추의 題本(명청시대 공용의 상주문)을 보니, “속국에서 임금을 폐위시켰으니 마땅히 빨리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간청하건데 황제께서는 속히 조치를 취하셔서 천하의 일에 대의를 바르게 하소서.”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황제의 성지는 ‘해당 관서에서 논의해 보고하라.’라고 되어 있었다.³⁸⁾

명나라의 입장은 인조반정을 왕위찬탈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맹량지와 모문룡이 인조반정을 보고하기를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신들은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해명하여 인조의 책봉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8월 3일, 文德坊 大明門 武功坊을 지나서 西長安門에 도착하여 翰林朝房의 기미를 엿보다가 각로들이 출근하면 꿇어 앉아 애걸복걸하며 정문을 올렸다. 맹량지는 조선에 대해 원망을 품고 인조반정 거사 때 왜군 3000명을 동원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하여야 했다. 이민성 일행은 “우리나라는 남으로 왜국을 접하고 북으로는 요동과 접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군사가 대치하고 있다. 정세가 위급하여 임금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고 하며 빨리 책봉을 해달라고 매달렸다. 각로들은 서서히 설득되어 가면서 의논해보겠다는 쪽으로 변화되어 갔다. 사신들은 申文을 올리며 읍소하였으나, 조사단을 조선에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후에 책봉하겠다는 논리였다.³⁹⁾

38)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初二日庚申 在館見禮科成明樞題 爲屬國廢君 076_472d亟宜問罪 懇乞聖明 速爲處置 以正大義於天下事 奉聖旨該部併看議來說 其全本具使臣狀啓 又見葉閣老辭本 爲量力不堪聞言增愧 懇求罷斥 以重政幾事 御史曹守勛以朝鮮處置事關撫去留事 俱下部的議 而不爲擔當斥之 以模稜故云.

39)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初三日辛酉 兩朝呈文于內閣 過文德坊大明門武功坊 到西長安門 以伺于翰林朝房 適韓閣老進即詣關 門外列立于行馬內 閣老下轎令免跪 捧呈文而去 有頃 朱閣老進 亦免跪 只

(2) 9월 1일 ~ 11월 14일 ;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짐. → 맹량지 사건 해명서 예부상서 임요유와 각로에게 올림 → 낙유신 편에 서울로 비밀장계 보냄 → 황제탄생 조서반포 의식참석 → 예부에 책봉 완결 탄원 → 염초하사에 대한 사은사, 동지사, 성절사, 조급 사행단 도착 → 성절하례 참석. 두 달 동안 조선에 간 조사관 오기를 기다림

9월 4일, 맹량지의 해명서가 올라가고, 9월8일, 조사단이 조선에 파견되고 있었다. 책봉 주청사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빼어내어 조선으로 비밀 장계를 보내었다. 낙유신은 모문룡의 조직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9월11일, 관리들이 출근하는 요로에서 인삼, 종이, 붓, 먹 등으로 선물공세를 펴며 정문을 올려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해명하느라 매일 아침 西長安門에서 출근하는 閣老들의 행차 앞에 늘어서서 애걸하고 있었다.⁴⁰⁾ 인조 책봉 주청사들은 각로들의 제본을 빼내 읽어 보면서 정보를

捧呈文 顧閣老進亦如之 惟魏閣老前呈文未及完寫 不得投呈 最後葉閣老進 使臣以下跪于路左 閣老立語曰 爲甚麼事來 令李膺等奉對曰 爲冊封事 閣老曰 壞舊君自立 事不明白 何以來請耶 痛辨如答主客司而加詳悉 閣老曰 何故不報朝廷而徑自廢置耶 答曰 舊君在位 誰敢以失德報聞天朝 而既廢則不可一日無君 此則理勢之自然 而內奉王大妃之教 外迫臣民之推戴 此等曲折 幸加諒察 閣老和顏曰 查了仍請揖 遂罄折作揖 閣老答揖而去 何, 朱兩閣老先詣內閣 故未及投呈 因候其出申時 六閣老連袂而出 跪于闕外 諸閣老停止 葉閣老曰 你國舉事時 引用倭兵三千何耶 力陳孟推官挾憾構誣之狀 閣老曰 若他外國之事則第循其請 你國與天朝一般須加慎重行查後方可准也 極陳無可查之事 閣老曰 行查 非但天朝事體當然 於你國亦順 通查文武臣民狀辭 然後可悉一國事情矣 答曰 本國議政統率一國文武百官 其申文在焉 不待查而可悉矣 且小邦南隣倭北接遼 朝夕對壘 凡干征繕 一日爲急 而未准之前 不可發號令於國中 是以小邦臣民 顯俟封典 一刻爲急 行查往返 自底遲滯 不勝悶鬱焉 閣老曰 雖則然矣 天朝事體 不可不略查 你猶未達耶 又極言事理 非惟不必查 亦不當查 閣老曰 當與部裏講議 遂叩謝而退 葉閣老名向高 閩之福清人 韓閣老名熿 山西蒲州人 何宗彥 江西金谿人 朱國禎 浙之烏程人 卽朝投呈者也 顧秉謙 南京崑山人 朱延禧 山東聊城人 魏廣微 北京南樂人 孫承宗 籍在北京高陽 位在何宗彥之下 以督理關城軍務 駐筭榆關.

파악하고 있었다. 모문룡의 상주문이 속속 도착하였다. 인조책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모문룡의 활약 때문이었다. 모문룡은 그 만큼 명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가였다.

11월 14일 황제 탄신일 성절하례에 참석하였다.⁴¹⁾ 조선에서 성절을 축하하는 동지사가 파견되었다. 동지사의 임무 자체도 인조 책봉을 위해 이전에 파견된 주청사들의 밑거름에 의해서 기획된 임무를 비밀리에 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황제 탄신 성절사의 임무로 참석하여, 꺾듯한 예의와 평소보다 더 성대한 방물들을 바침으로서 황제의 마음을 돌렸다.

(3) 11월 15일 ~ 12월 17일 ; 치열한 외교투쟁 끝에 조선 국왕 책봉 결정 ; 등래군문에 題本을 올려 줄 것을 요청 → 奏本을 예부에 제출 → ‘권서국서’ 논란에 설득 나섬 → 예부에서 조선국왕 책봉 주본 올림 → 조선국왕 책봉 결정

11월 15일, 등주군문에 우리의 保結이 도착했는데도 군문에서 올려주지 않아서 소문을 올리고, 속히 제본을 올려 책봉을 인가받으려고 정문을 올렸다.⁴²⁾ 11월 16일, 제본을 보니 책봉의 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이때 조선에서 온 동지사가 예물을 올려서 훨씬 더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또 하나 예부 제본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

40)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十一日戊戌 在館主客司主事周鏘就禮單內收參紙筆墨 批云收四色 餘壁云.

41)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十四日庚午 大雪參聖節賀禮 曉詣東長安門外 聞免朝 隨文武百官 行禮于午門外 只五拜三叩頭而出 入長安門外角頭飲 陳鵬等盛備酒饌 冬至使領光祿寺酒飯後追到 共酌數巡而歸.

42)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二, 『朝天錄』中, [癸亥], [六月]; 十五日辛未 在館譯官李恂, 太德立等發向登州 毛摠鎮所送我國保結到部 而軍門不爲題本 故閣部執以爲辭 使之呈訴于軍門 乞速上本 俾完封典 而製呈文授去.

다. “진하하는 일로써 주객청리사가 문서의 내용을 예부의 담당신하가 보았습니다. 속국인 조선은 본래 예의의 나라라고 칭하여졌는데, 이제 만수 성결과 동지명절을 맞아 공손하게 진하하는 정성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비록 책봉 전례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 직분을 더욱 게을리 하지 않아 뜻이 공경하고 삼가는 데 있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표문에 근거하여 바쳐온 방물은 이미 담당관서에서 협의를 거쳐 곧 제본을 올려 받아들여기를 청할 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정상적으로 계승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조정의 체통을 잃지 않았고 또 변방의 신하가 국운을 함께 만드는 충성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제본을 올려 지시를 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신들의 피나는 외교전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각로들을 설득한 결과 각로들이 입장을 바꾸어 책봉사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조 책봉 주청사의 임무가 진행되는 동안 趙澱(1568~1631)이 동지사로서 와서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인조 1년 6월 2일, 비변사가 “중국 조정이 동지사 李顯英 편에 수만 근의 焰硝를 특별히 지급하였으니, 동지사 趙澱이 가는 편에 거둬 사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⁴³⁾

“계해년 7월에 동지사 趙澱에게 謝恩使를 겸임시켜 方物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⁴⁴⁾ 여기에 성절사의 임무까지 겸해서 한 것이었다. 花川 趙澱이 쓴 <조천록>도 이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 활동 면에서는 임무가 달랐다. 趙澱(1568~1631)은 동지사였으며 奏請使가 아니었다. 일부 『朝天錄』에는 奏請使로 말한 것은 잘못이다. 이때 성대한 사례를 함으로써 책봉에 영향을 미쳤으니 미리 가있던 주청사의 요청으로 인조의 책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43) 『仁祖實錄』, 2권, 1623년 명 天啓 3년, 인조 1년 6월 2일, 기사 조항.

44) 『凝川日錄』, 무진년 하(1628, 인조 6), 11월 14일, 조항 참조.

각듯이 하였다. 이때 주청사와 동지사가 함께 옥하관에 머물면서, 책봉주청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마무리될 무렵 성대한 方物은 명나라 조정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즙은 측면으로 주청사의 외교활동을 공조하여 은근히 도운 것이었다. 이때 조즙과 이민성이 서로 화답한 시가 조즙의 『燕行酬唱集』과 이민성의 『燕槎唱酬集』에 각각 실려 있다. 서로의 임무는 확실히 달랐다. 이것 때문에 후에 이민성을 탄핵할 때 공로를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조즙의 영향을 거론한 일도 있었다. 이민성의 『조친록』은 이에 대한 혼란을 명쾌하게 해결 준다. 이때 동지사의 정사는 趙澦, 서장관은 任賚之였다. 이때는 특이하게 사신은 2명 이었다. 아마도 주청사가 이미 파견되어 있기에 부사는 따로 임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25일, 조선으로 비밀리에 임무를 받은 명나라 조사관은 바람을 만나서 돌아올 기약이 없고 본국의 보결은 이미 도착했으니 빨리 책봉을 요청해 달라는 뜻으로 먼저 주객사에 들렀다. 畢주사와 周鏘이 서로 말하기를 조사관의 회보는 기약이 없고 사신들이 고달프게 체류하고 있으니 그 정리가 매우 민망하다 하물며 본국의 보결이 이미 도착했으니, 비록 등래무원의 제본이 없으나 변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예부의 체통이 登萊巡撫보다 못할 것이 있는가? 함께 尙書에게 나아가 극진히 그 뜻을 말씀드려 보자고 했다. 들어가 보니 상서 임요유만 출근해 있었다. 동지사와 함께 정문을 올리니 긍정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었다. 다시 서장안문 밖으로 나아가니, 네 각로가 있었다. 정문을 바꿨더니 葉각로가 정문을 펼쳐보고 또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서, 공본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본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책봉을 인준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마땅히 예부에 물어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정문을 급사중에게도 올렸다.

11월 29일, 눈이 내렸다. 상서의 가르침대로 주본을 지었다. 그 요지는 조선국 주문배신 이경전·윤환·이민성 등은 “삼가 속국 사정이 매우 긴

급하여 황상께 간절히 청하오니 빨리 봉전을 내리시어 변방을 공고하게 하는 일로 삼가 아뢰입니다.”라는 내용이였다.

인조를 權署國事(예전에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한 왕의 임시 칭호를 이르던 말)에 임명하는 문제는 해당관서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배신들은 안심하라고 하였다.

12월 12일, 예부상서가 사신들이 올린 정문을 보고 말하기를 예부에서 배신이 작성한 주본에 근거하여 제본을 올려 책봉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의 논의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배신들은 장차 이 정문을 가지고 내각에 가서 호소하고, 또한 병부에 가셔도 품신해 보라고 하였다. 마땅히 논의가 타결되면 즉시 제본을 올려 주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8] 명나라 황성도45)

45) 중국 바이두 사전.

그는 명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구국(현재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시를 써 주기를 간청할 만큼 빼어난 한류 시인이었다.

| | |
|---|---------|
| 말로에 성현을 스승으로 삼길 바랐으나, | 末路期期師聖賢 |
| 임하에서 독서하며 몇 년을 보내었던고 | 讀書林下送殘年 |
| 실력은 열중에 여덟만도 못하였다오, | 不如意事什常八 |
| 매번 능한 이를 보면서 백배천배 노력하리라. | 每見人能百倍千 |
| 北學의 연원은 당연히 그 뿌리가 있을 텐데, | 北學淵源應有自 |
| 동방에 온 의발은 어찌하여 전해진 게 없을까. | 東歸衣鉢豈無傳 |
| 등용문의 여운이 장차 정리가 된다면, | 龍門餘韻如將理 |
| 응당 아교를 녹여 끊어진 거문고줄 이어야 하리. ⁴⁶⁾ | 爲擬煎膠續斷絃 |

이 시는 이민성이 서장관으로 두 번째 명나라에 갔을 때인 1623년 11월 二十九日 옥하관(북경에 있던 조선 사신의 숙소)에서 책을 읽다가 감발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이를 읽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놀라며 말했다. 그 시구에 이르기를 “북학은 반드시 연원이 있을 텐데, 동쪽으로 온 의발은 어찌하여 전함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중국 조정의 학사들이 듣고서 서로 전하며 암송하면서 “李謫仙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⁴⁷⁾ 여기서 北學이란 용어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중국에 가서 공자의 근본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나 북학이란 용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민성은 중국 문사들이 이태백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문명을 떨치고 돌아왔다.

46) 李民寔, 『敬亭先生集』, 卷之七, 詩, ○燕榭唱酬集中, 「讀書有感」.

47) 李民寔, 『敬亭先生集』, 卷之一, 年譜; 在館讀書感而賦詩 其詩云 北學淵源應有自 東來衣鉢豈無傳 中朝學士聞而傳誦 不名以李謫仙稱之.

(4) 12월 17일 ~ 1624년 3월 2일 ; 책봉 결정이후 연경 조정의 행사에 참여하며, 명나라 조정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예부 방문 → 역관 신용용 사망 → 정조하례 참석 → 왕비책봉과 조사 파견 정문을 예부에 올림 → 내각에 정문 올림 → 국자감 성현 참배 → 방물 제본 인가 → 천단, 지단 유람 → 하마연 받음. → 길복착용 책봉칙서 받음 → 유구 사신들과 담소 → 중국 표류인들 호송 → 황제 상을 내림 → 상마연 받음.

12월 18일, 드디어 인조의 책봉을 인가하는 황제의 성지가 내렸다.

李侗(인조)은 이미 그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공동으로 보증하였고, 윤리와 차례가 계승에 상응하며 또 황제 받들기를 공손히 하여 군량을 운반하여 도왔으니 조선국왕에 책봉할 것을 인준한다. 먼저 칙유를 내리고 登萊巡撫로 하여금 관원을 차출해 배신과 함께 가져가서 내려주라. 책봉 칙사는 일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옛 사례를 조사하여 시행하라.

책봉이 완결되자, 각 아문들의 하인들이 와서 축하 사례하는 자가 어지럽게 가득하니 그 소란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⁴⁸⁾

12월 19일, 正朝賀禮의 예행연습에 참여하였다. 12월 20일, 歷代王朝廟를 참배하였다. 사당은 景德街에 있었다. 12월 21일, 申應灑이 갑자기 죽었다. 12월 22일, 주사가 말하기를 “이미 책봉을 인가하였으니 돌아가 사신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라. 각 아문의 하인들이 지나치게 축하 사례금

48) 李民宥, 『敬亭先生續集』, 卷之三, 『朝天錄』下, [癸亥], [十二月]; 十八日癸卯 詣禮部 尙書罷坐入火房 堂吏令俟票紅之下 見禮部題 爲酌議屬國封典 仰祈宸斷 以明大義 以固邊疆事 奉聖旨 姓諱 旣係該國臣民公同保結 倫敘相應 又翼戴恭順 輸助兵餉 准封朝鮮國王 先與勅諭 著登萊巡撫差官 同陪臣齎賜其冊使 俟事寧 查照舊例行 本部據兵部權署題請而具奏 故未段措語 不違樞部之意 聞林尙書袖稿 往來葉閣老第 相與講定云 各衙門下人來索喜錢者 紛逕填擁 不勝其擾.

을 요구할 터이니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 갑자년 1624년 1월1일, 正朝 賀禮에 참석하였다. 1월 9일, 왕비책봉에 대한 것도 하소연하였더니 마땅히 내각에 품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1월 14일, 보름날 연등행사를 관람하기를 청했다. 1월 25일, 국자감에 가서 성현을 참배 하였다. 석고도 보았다. 2월 2일, 諭德 姜逢元이 지은 황제의 칙서에 대한 초고를 보았다. 거기에는 정비 한씨의 책봉도 동시에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다. 주청사들은 왕을 책봉하면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난색을 표하던 명나라 조정은 이를 수용했다. 인조 책봉 주청사들은 거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외교 정보전을 펼치고 있었다. 2월 3일, 정양문으로 나아가 정양교를 지나 천단으로 나아갔다. 또 지단도 유람하였다. 2월 6일, 화약의 재료인 염초의 무역을 위해 병부에 문서를 올렸다. 너희 나라는 명나라를 돕지도 않으면서 염초를 무역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연례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무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지사들은 황제의 염초 하사에 대한 사은사의 임무를 띠고 왔으며, 염초 무역을 성사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주청사도 공조하여 염초무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다. 주청사와 동지사들은 연합하여 명나라 조정의 정황을 엿보며 틈틈이 북경유람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었다.

2월 15일에는 유구국 사신들이 찾아와 답소하였다. 2월 17일, 드디어 칙서를 받았다. 칙서에는 인조의 책봉과 왕비한씨의 책봉에 대한 것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인조책봉주청사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하고 귀국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다. 3월 2일, 동지성절사가 출발하였다. 주청사도 출발 하직서류와 인사를 마쳤다.

(5) 3월 3일 ~ 3월 24일 : 드디어 귀국 길에 오름 趙澱.

노정 ; 홍려시 하직인사 → 탁주 → 백구하점 → 임구현 → 신중진 →

부장일 → 경주 → 토교포 → 왕가방 → 장가점 → 추평현 → 치하점 → 창락현 → 왕로점 → 사하점 → 주교일 → 황현 → 등주.

| 월 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3월 03일 | 홍려시 하직 인사. 延壽寺, 노구교, 新店 苗家 유숙. | |
| 3월 04일 | 북리고, 단양교, 양향, 유리교(아침), 부교, 거마, 涿州 도착. | |
| 3월 05일 | 삼갑점, 신성현, 禿亢陝, 禿亢亭, 白溝河店 유숙. | |
| 3월 06일 | 拒馬河, 雄縣, 남문 召公의 牌樓, 조구포, 薊州, 任丘 도착. | |
| 3월 07일 | 석문교, 도가둔, 신중진, 포화둔, 尊福鄉, 毛萁 詩經강학처, 河間府. | |
| 3월 08일 | 蓮花亭, 瀛州의 仙境, 현현, 단가교, 요참, 교하. | |
| 3월 09일 | 麟河, 阜城, 周亞夫 사당과 묘. 만하점, 景州 도착. | |
| 3월 10일 | 董子(동중서)書院참배, 土橋舖에 도착. | |
| 3월 11일 | 陵縣, 鳳凰舖, 王家坊 도착. | |
| 3월 12일 | 두가 수구 타석교, 배를 타고 양하 건넌, 章家店 도착. | |
| 3월 13일 | 단가교, 복성 서경강학처, 鄒平縣, 범중업 구거, 五川, 오릉중자사당. | |
| 3월 14일 | 淄川 長店, 金嶺驛, 淄水, 牛山, 淄河店 도착. | |
| 3월 15일 | 益都, 만년교, 진청문, 夜雨樓, 미하점, 극남성, 창락현. 이팔의 난. | |
| 3월 16일 | 선산고적. 伯夷, 逢萌, 의 고향, 王裒의 옛 마을, 濰縣, 孔文舉, 晏平仲의 고향, 한정점, 王彦方의 고향, 영구의 옛봉토, 왕로점 도착. | |
| 3월 17일 | 창읍현, 배로 淮河건넌, 복장점, 신하, 宋 龍圖閣 蔡齊 고향, 沙河店 | |
| 3월 18일 | 래주 문묘 배향, 東萊書院, 夜縣 朱橋驛. | |
| 3월 19일 | 黃山驛, 동지사 등주도착 소식, 황현 동관일. | |
| 3월 20일 | 東牟 등주 수성문 밖 도착, 동지사와 서장관 친막을 봄. | |
| 3월 21일 | 등주. 출국에 필요한 정문을 海防道에 올림. | |
| 3월 22일 | 등주, 동지사와 함께 석별의 잔치를 받음. | |
| 3월 23일 | 군문 수행원에게 은자를 줌. 등주군문의 우대, 낙유신 송별연 참석. | |
| 3월 24일 | 동지사와 함께 중군 연회참석. 낙유신 선물에 갈을 아들에게 보답. | |

3월 3일, 동지사 보다 하루 늦게 북경을 출발하며, 그 전날 궁궐을 나와서 三官廟에서 잤다.畢주사는 밤새도록 조선이 오랑캐 척결에 협조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모문룡 도독의 차관들이 와서 인사를 했다. 인조 책봉의 대가는 모문룡을 도와 명나라를 위해 오랑캐를 몰리치는데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이민성은 연경을 나서며 노구교를 구경하였다. 마르코폴로가 <동방견

문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극찬했던 다리이다. 이민성도 “난간에는 돌사자를 조각했고, 무지개 수문이 10개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새벽에 바라보는 달은 북경팔경의 하나였다. 필자도 북경에 있을 때 500여 마리의 돌사자 조각이 화려하게 조각된 이 다리를 감상한 적이 있다. 주청사들은 북경을 출발해서 동지사와 연이어 노정을 같이 하였다. 3월 22일, 등주에서 동지사의 행차와 만났다. 동지성절사와 같이 등주 군문에 나아가 귀국에 필요한 철차를 밟았다. 3월 24일, 동지사와 함께 연회에 참석하여 송별연을 하였다. 자못 우대하는 성의가 보였다. 낙유신과 그 아들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이민성은 그동안 낙유신의 도움에 감사하는 뜻으로 차고 있던 칼을 풀어서 낙유신의 아들에게 주었다.

연경에서 돌아오는 노정은 갈 때와는 달랐다. 연경에서 탁주로 내려오면서 하간부를 거쳐 덕주에 이르고 덕주에서 제남을 거치지 않고 셋길로 빠져 나와 등주에 이르는 길은 새로운 길이었다. 이민성은 이 길을 오가며, 명승고적들을 유람하며 내려 왔다. 그의 유가의 인물과 역사적 유물들을 탐방하며 서술해내는 박식함은 한편의 중국 고대의 인문지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

(6) 3월 25일 ~ 4월 8일 : 등주에서 ~ 선사포

노정 ; 등주 → 묘도 → 여순구 → 평도 → 삼산도 → 석성도 → 피도 → 선사포. 제4선 8일 도착 못함.

3월 25일, 자정에 해신에게 제사하고 출발하였다. 동지사 배도 따라와 함께 묘도에 정박하니, 인조책봉사 배 6척과 동지사 배 4척, 도합 10척이었다. 3월 26일, 하루 만에 황성도를 거쳐 여순구 앞에 도착했다. 순풍에 돛을 올리고 밤새 달려 4월 8일에 선사포에 도착했다.

(7) 4월 9일 ~ 4월 21일 : 선사포에서 서울 귀환.

노정 ; 선사포 → 신안 → 가흥 → 순안 → 평양 → 용천 → 금교 → 벽
계 → 서울 → 융경전.

4월14일, 칙서의 예식이 20일 오시에 잡혔으니 그날에 도착하라는 교지를 받았다. 경유하는 고을마다 인조 책봉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사신들의 환영의 잔치가 베풀어졌다. 4월 20일 모화관에게 도착하였다. 4월 21일, 융경전에서 인조임금을 뵈었다. 이조는 “무사히 돌아온 것과 책봉을 성사시키고 와서 짐이 몹시 기쁘다.”라고 치하하고 중국의 사정에 대해 물었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고 드디어 그 긴 사행을 마쳤다. 장장 12개월 23일 만의 대 장정을 끝냈다. 역관 신용룡 이 죽은 것 외에는 전원이 무사하게 돌아왔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한편의 영화 같고 드라마틱하다.

인조는 특별히 奏請上使 李慶全, 부사 尹暄, 서장관 李民宥에게 加資하고 노비·土田을 내렸으며, 일행의 員役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이 경전에게는 노비 6구와 토전 20결, 윤훤에게는 노비 5구와 토전 15결, 이민성에게는 노비 4구와 토전 10결, 역관 李膺에게는 가자하고 노비 2구와 토전 5결을 내렸다. 張世宏 등 10인에게는 가자하고 張應善 등 17인에게는 각각 熟馬 1필을 내렸다.⁴⁹⁾

실로 우리역사에 이보다 더 치열한 외교전이 있었던가. 이일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이민성의 조천록은 사행기록의 꽃이었다.

명 조정이 인조반정을 ‘찬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조선의 인조임금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청 교체기 守勢를 염두에 둔 결단이었다. 명 조정은 마치 ‘모문룡의 노력’ 때문에 인조를 책봉하는 것처럼 했다. ‘인조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모문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49)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5월 15일, 기사, 1624년 명 天啓 4년.

조선으로 하여금 후금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명나라를 위하여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 군사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상으로 이민성이 1623년 인조책봉주청사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일기 『조천록』의 朝天路의 노정분석과 외교 활동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5. 결론 : 李民寔 『조천록』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의

이상으로 이민성 『조천록』을 살펴보았다. 명나라를 다녀온 조선 사신들의 기록인 『朝天錄』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인조 책봉을 위해 1623년에 파견되었던 주청사의 서장관이었던 이민성의 『朝天錄』은 이채였다. 인조반정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설득시키는 치열한 외교전을 상세하게 기록한 독특한 사행의 기록이며, 기록의 힘을 다시 보여주는 사행기록의 백미이다.

이 『조천록』은 가장 장기간의 기록이란 점이 특이하고, 그 맡은 임무가 특이하고, 그 처한 시대적 상황이 특이하고, 사행을 위한 해로선단 조직이 특이하고, 그 사신의 노정이 특이하고, 그 외교활동이 특이하다.

첫째, 그 기간이 길었다.

李民寔 『조천록』은 1623년 3월 25일 인조 책봉주청사 서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1624년 4월 21일 돌아와서 인조 임금을 배알하고 인조 책봉 주청사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1년 2개월(14개월)의 기록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윤달인 10월이 한 달 더 들어 있었다.

서장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상세한 사행의 준비과정, 그리고 사행의 노정, 외교활동,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조천록』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사행의 기록이었다.

둘째,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말자 인조 책봉사가 다급하게 꾸러진다. 정사 이경전, 부사 윤훤, 서장관 이민성, 그 당시 최고 호화 사행단이 꾸러지면서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표방하고 있는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 인조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황제를 설득하여 인조책봉의 허가를 받아오는 결코 쉽지 않는 임무였다. 명나라 본국에서 벌어지는 인조반정을 위한 외교전은 다른 『조천록』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진진한 기록인 동시에 기승전결이

있는 갈등과 대단원의 요소가 구비된 한편의 외교전이였다. 조선시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이때처럼 난관에 부딪힌 적은 없었고, 역대 사신들 중에서 이들만큼 사활을 걸고 논쟁을 벌인 적도 없었다. 인조 책봉이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 기록은 조선을 위한 우국의 정과 임금을 위한 신하의 충정이 분출되는 정황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 기록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긴장과 이완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한편의 역사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이 기록에는 역사보다 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사료가 들어 있다.

셋째, 그 처한 시대적 상황이 특이했다.

이 사행은 명·청 교체기 후금과의 전시 중에 행해지는 사행이였다. 명나라가 자존심을 건 심하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기에 파견되어 포로가 되었던 강홍립의 전투과정과 광해군의 후금과의 화해분위기에서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 배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모 문통과 맹랑지는 인조반정을 불순한 것으로 명나라 조정에 보고해 버렸다. 이 당시 조선과 명과의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악화 일로에 있었다. 명나라는 국력이 쇠퇴하여 누르하치의 전세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였다. 이 전시의 긴장감 속에 빠져 있는 명나라 조정을 설득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신 행차였다.

이민성의 『조천록』은 명·청 교체기의 동북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 그 당시의 역사적 지평을 넓혀주는 훌륭한 자료이다. 국내적으로는 인조 반정과 그 당시의 국제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담고 있어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준다.

넷째는 해로사행 선단의 조직과 구성이 특이 했다.

여섯 척으로 구성된 해로사행단의 조직과 임무가 특별하였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록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당시 해로 사행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는 그 사행의 노정이 특이 했다.

명·청 교체기 후금과의 전시 중에 해로의 사행은 위험한 사행이었다. 해로사행 노정의 개척과 모험,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항해 속에 긴장과 이완이 있다. 후금의 점령지를 피해 발해만 연안을 따라 항해 하여야 했고, 명나라 주둔지를 찾아서 물품을 공급 받으며 항해하는 일종의 전투였다. 전시에 이루어지는 노정이라 가는 곳 마다 통관이 쉽지 않았고, 당시의 명나라와 후금의 전시 판도에 따라 이루어 졌다. 등주에 도착한 이후 연경까지의 뱃길과 육로를 겸한 노정도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행의 기록은 해로사행의 상세한 노정과 험한 파도와 싸우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진행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항해기록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행 1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행의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섯째, 이 사행기록에는 치열한 외교전이 상세하게 묘사된 것이 특이하다.

명·청 교체기의 정세에 대한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 펼쳐지는 인조반정 이후 인조의 책봉을 받아내기 위한 사행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며 다분히 굴욕적이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만한 태도에 분통

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해명해 나가는 길은 외교 전쟁이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인조 책봉을 위한 치밀한 작전, 조선의 첩보를 생산하는 모문통과 펼치는 은밀한 거래, 이 사행의 고비 고비에 중국의 관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계략과 음모에 공을 세우는 낙유신이란 인물의 활동은 그대로가 한편의 영화다.

조정의 각료들이 출입하는 서장안문 앞에 늘어서서 인조의 책봉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명나라 고관들을 설득 시키며, 애걸복걸 하는 것은 도저히 넘지 못할 높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민성 일행은 북경에서 인조반정의 실상을 해명하고 책봉을 얻어내기 위해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행은 막중한 임무를 해결한 외교적 성과에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들만하다. 이것은 한편의 외교 정보전을 주제로 한 영화 같은 기록이다. 사신들은 연경에서 외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명나라 조정각료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그 첩보를 비밀리에 조선에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것은 긴장이 있는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인조의 책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첩보전에는 모문통과 그의 첩보원 낙유신이란 인물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 지리멸렬하게 벌어지는 외교전 속에서, 황제의 생일을 맞아 파견되는 동지사를 통해 은밀히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작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술한 모욕감, 서장안문에 서서 시위하듯이 애걸하며 명나라 각료들에게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우국의 정은 눈물겨운 행위였다. 이렇게 황제의 조정을 설득하기 위한 약 1년 2개월에 걸친 외교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드디어 인조의 책봉을 허가 받아낼 수 있었다. 명나라가 인조반정을 묵인 내지 승인한 실질적인 이유는, 조선의 문제를 바로잡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조반정을 마지못해 승인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특이한 기록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기록은 역사적 안목이 뛰어나다.

이민성이 사행 노정에서 만나는 기이한 경관을 묘사한 기록은 그의 박식하고 유려한 필치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명·청 교체기의 시사적 상황을 일일이 분석하여 기록하고, 당시 명나라 조정의 인조반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명나라 관리들과 벌이는 치열한 외교 활동은 정문을 올리느라 그의 붓끝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민성은 정, 부사와 함께 모책을 올려 仁祖反正의 거사를 극력 변론하여 명분을 바로 잡고 의리에 합당하게 하였으며, 터무니없는 무고에 대한 분통한 마음을 드러내었으니 그 문장은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뛰어난 문장력 때문에 명나라가 비로소 의심을 풀었다.

이 사행기록은 이민성의 유학적 수기치인과 우국애민의 선비정신이 저변에 드러난다. 사행노정 도중에 곳곳을 다니며 그 지역의 훌륭한 다스림과 비문 등, 관료의 입장에서 선정의 흔적을 찾아내어 묘사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 도착하면서 거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풍부하게 싣고 있어서 인문지리지를 방불케 한다. 특히 역사적인 유명인물이나 유학에 공이 있는 인물들의 사당과 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학자의 고적답사를 겸하고 있으며, 유교적인 수기치인과 우국애민의 시각으로 중국의 지역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 훌륭한 경치를 보거나 사건을 기록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방식이 다분히 감성적이다. 곳곳에서 그 명에 관련된 유래나 전설 풍속 등, 이에 대한 기록은 훌륭한 가이드를 연상하게 한다.

이 기록은 중국 등주에 도착한 이래 사행의 노정 개척과 그 주변의 명승고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유교적인 학문성향에 따른 고적답사로 사행 속에 펼쳐지는 유학자적 선비정신의 표출은 특징이라 할만하다.

이민성의 『조천록』은 역사적 안목과, 박식함, 유려한 문학적 필치, 기록의 치밀한 구성 등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선과 명나라의 교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료이며, 만1년 2개월이 넘는 긴 사행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과 외교활동, 그리고 사행 도중에 유람한 중국의 풍경에 대한 진기한 기록은 감동적이며 문학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명나라와 조선의 수많은 사행기록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의 문체작으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록이다. 또 그 기록에는 문학적인 표현이 곁들여져 있어서 유려한 필치가 돋보인다. 이것은 그대로가 기행문학의 문학적 가치가 된다.

이 조천록은 후대 『조천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민성의 인조책봉 주청사 『조천록』은 조선 사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다. 이민성의 『조천록』은 다양한 관점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와 문학 비평의 자료로 볼 때 기행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조선의 전 사행문학을 압도하는 최장기간의 사행기록으로 그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이었다.

앞으로 경정 이민성의 『조천록』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金尙憲, 『淸陰集』.
 李民宥, 『敬亭先生集』.
 李瀾, 『星湖僊說』.
 인터넷 바이두 사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熹宗實錄(明)』.

- 김지현, 『敬亭 李民宥의 ‘癸亥朝天錄’ 소고』, 『은지논총』, 42권, 은지학회, 2015, 9~37쪽.
- 劉寶全, 『花川 趙澗의 燕行과 한시 창작』, 『동방한문학』, 52호, 동방한문학회, 2012, 25-56쪽.
- 文明順, 『경정 이민성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敬亭 李民宥의 文藝論과 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학위논문, 1991.
- _____, 『敬亭 李民宥의 詩論』, 『漢文學報』, 제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113-141쪽.
- 朴瓊恩, 『敬亭 李民宥의 詩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敬亭 李民宥의 詩文學 : 日常事 및 燕行의 體驗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15집, 韓國漢文教育學會, 2000, 199-225쪽.
- 정은주, 『明清交替期 對明 海路使行記錄書 研究』, 『명청사연구』, 명청사학회, 2007.

투고일 2017. 1. 31 심사시작일 2017. 2. 21 심사완료일 2017. 3. 21

Abstract

A study on the Jhochunlog(朝天錄)
of Gyongjeong(敬亭) Lee Min-Sung(李民成).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A study on the jhochunlog(朝天錄) of Gyongjeong (敬亭) lee minseong(李民成,1570~1629). 1623 through March 25. Injo-banjeong(仁祖反正) King-Injo China-installed crown princes in the Ming Dynasty that went for a personal letter to ask for knowledge and activity in Beijing weather 『jhochunlog(朝天錄)』 for research.

Lee Min-Sung the investiture of the King Injo envoys dispatched to be chosen as his entrance of seojanggwan from 1623 through false and led a task force for one month a year, 1624. An overland route from Beijing because of the war of the Ming and Qing replacement for blockage, an envoy was dispatched through the sea.

In the Joseon Dynasty, the new queen, the crown prince, or to fill the throne will send an envoy to Ming China for the selection, each time fully invested and China-installed crown princes by request. The name each time and dips the appointment of the State of the Union to me.

But Crown prince, however, fully invested, and China-installed crown of King Injo, name and request for replacement during the Ming Dynasty of the Joseon Dynasty uncooperative an outrageous charge, without fully invested to allow the shipbuilding and the poin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Ming Dynasty is in deep trouble was.

Because of this, Lee Min-Sung in Beijing were Injo-banjeong fully invested and an explanation about the reality of the literally blood, sweat and tears to get my diplomatic efforts. At this point in diplomacy with the Ming Dynasty, live and die as well as those of the envoys of all time, and never hit a rough patch and never engage in debate. This record is at the time of the intense efforts made at the end of the vividly describes the gambling

activity.

Lee Min-Sung for the 「jocheonlok」 exchange will be down in history, an important feed, and a full year with the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speculative long, more than a variety of events and in the process of diplomatic activity. And during take a chance for rare records for Chinese scene is looks great in a moving and literary value.

This is among a number of gambling records clearly the best of the Ming Dynasty and Joseon's controversial work can be seen as an exciting record.

Keyword Gyongjeong(敬亭) Lee Min-Sung(李民成), jhochunlog(朝天錄), King Injo, envoys through the sea, Ride an envoy, the installation of an envoy.